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하는 동창회 ● 노력하는 동창회 ● 영광스런 동창회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映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계좌번호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 208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7월 1일 월 간

[1]



커버스토리 5면

새 진용
새 출발

재미동창회



해외지부 활성화를 위해 동창회 임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7월과 8월사이에 북미주지역, 네덜란드 그리고 중국을 순방하기로 했다고 한다. 임원들의 해외지부 순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방문은 광복 50주년 및李 僑 열사 88주기 추모행사 참여를 결구하고 있으며 또 중국순방은 중국대륙에 우리의 지부를 새로이 창설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70년대를 통해서 국내의 지방지부와 직장지부의 결성을 완료하고 조직을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80년대를 통해서 해외지부 결성과 조직강화를 위해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가을의 관악등산행사에는 해외로부터 참가하는 동문의 수가 해마다 늘

어나게 되었고 또 우리의 동창회보 미주판이 미주에서 순조롭게 발간되고 있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우리가 일찌기 해외의 동문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동창회로의 참여를 촉구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날 세계화의 추세에 비추어

해외지부 활성화

볼 때 그 뜻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교도 또한 우리 동문들도 세계를 무대로 삼아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속에서 해외지부는 모교와 동창회의 일부로서 그 의의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해외지부의 결성을 환영하며 조직강화를

촉구한다.

앞으로 해외지부가 우선 할 일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일일 것이다. 동문들의 해외진출이 커지고 있는 요즘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기능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일은 해외에서의 모교 지원사업일 것이다. 모교의 세계화는 아직 유명무실하다. 가령 교수와 학생들의 해외교류활동에 있어서도 모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미약하다.

해외지부가 독립적인 법인체라도 만들어서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그 외에도 해외동문들이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번 임원들의 해외순방이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원한다. (榮)

만든사람

논설위원: 金榮國, 金哲洙, 孫一根, 崔靑林, 朴應七, 金昌悅, 朴世熙, 李東和, 李炯均, 宋鎮赫, 李年憲, 丘月煥, 洪性萬, 朴紀正, 李成俊, 吳效鎮, 安炳燦 편집주간: 李世霞 기자: 安興燮, 金志妍, 金愛泳

회장단 북미주·중국·화란 순방 해외지부 활성화 적극 지원키로

북미주 5개지부 방문

본회 金在淳회장과 張翼龍부회장, 閔丙峻사대동창회장, 李世震사무처장은 오는 7월12일부터 27일까지 북미주지역을 순방, 해외거주 동문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고 해외지부 동창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은 지난 5월에 선출된 신임 李丙俊재미동창회장과 뉴욕지부등 지부동창회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회장단은 북미주 15개 지부중 LA지부(회장 全熙澤)를 첫 방문지로 하여 시카고지부(회장 朴泳圭), 워싱턴지부(회장 李鍾國), 뉴욕지부(회장 吳仁錫), 캐나다온타리오지부(운영위원장 李京姬) 등 5개 지부를 차례로 순방, 현지동문들과 간담회를 통한 활성화 방안과 모교 개교 50주년 준비계획을 논의한다.

북경·상해지부 창립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은 오

는 7월15일부터 22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중국 북경·상해를 방문, 지부창립을 한다.

본회 해외 38개 지부가운데 아직 중국지역의 지부가 창립되지 않아, 세계 어느곳에서나 서울대인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중국지역의 지부결성은 시급한 과제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鄭宗澤상임부회장은 중국주재 모교 출신 외교관, 상사원, 유학생,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부를 창립, 해외지부망을 넓힐 방침이다.

유럽한민족제전 참가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崔秉烈부회장, 白文基관악회감사, 李達雨공대동창회장, 李炯均 本報논설위원, 李世震사무처장은 오는 8월1일부터 6일까지 네덜란드지부(회장 林基滿) 순방 및 「유럽 한민족제전」에 참석한다. (본보 207호에 관련기사 게재)

이번 방문은 본회 金在淳회장이 대한항공의 협찬을 받아 李 僑열사의 흉상을 제작(조각가: 白文基예술원 회원), 李 僑박물관에 증정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회장단은 우선 네덜란드지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일부터 헤이그에서 열리는 광복 50주년 기념 및 李 僑열사 88주기 추모를 위한 「유럽 한민족 제전」에 참석, 李 僑박물관 개관식 흥상제막식을 주재하게 된다.

(變)

동창회보 마이크로필름 제작 창간호부터 동문들 열람 가능



동창회보 마이크로필름.(보관용·열람용 6롤)

본회는 지난 6월10일 모교 도서관(관장 朴孝根)의 협조를 받아 동창회보 2백부(창간호~2백호)를 마이크로필름(35m/m)으로 제작, 영구보관이 가능해졌다.

76년 4월에 창간, 지난해 11월에 지령 2백호를 맞이했던 동창회보는 그동안 노후와 부피의 증대에 따른 보관상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본회는 지난해 10월31일 金仁喆(62년 師大卒·信友콘티넨탈회장)동문이 기증한 회보를 검색하고 추가 보충하여 도서관 정보관리과(林海天서기)에 의뢰, 보관용과 열람용으로 제작을 완료했다.

이로써 동창회보는 창간호부터 일반동문들의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

「6월, 서울대 동문의 밤」개최 민주화운동의 값진 희생기려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 주최「6월, 서울대 동문의 밤」행사가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본보 207호에 관련기사 게재)

기념조형물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이날 행사에는 모교 李壽成총장, 본회 李世震사무처장을 비롯해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동문들의 값진 희생을 기렸다.

이날 李壽成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 자리가 다른 어떤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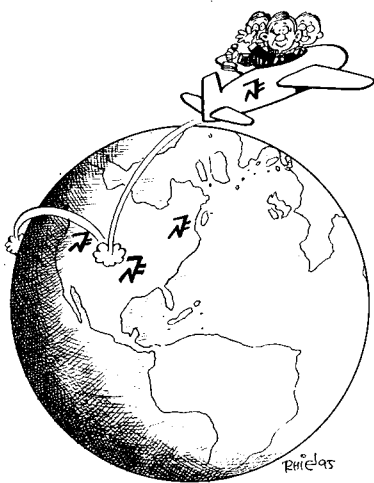
임보다 맑고 깨끗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고 조형물건립사업에 동문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건립추진위는 내년 10월 모교 개교 1백주년에 맞춰 기념조형물을 완성하고 「4월 학생혁명 기념탑」등 교내 곳곳에 산재된 추모비등을 모아 민주화 성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金泳三大통령(본회 고문)은 교육비서관을 통해 추진위원회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만 평

李元馥



회장단 해외순방

서울대 세계화의 礎石이 되기를...

커버스토리

재미동창회 제4차 평의원회 개최

李丙俊회장 선출, 姜洙祥·金永基동문 고문 추대



지난 5월20일 북미주 평의원 15명이 참석, 李丙俊 재미동창회장을 선출했다.

재미동창회(회장 姜洙祥)는 지난 5월20일 로스앤젤레스 욕스포드호텔에서 제4차 평의원회를 개최, 임원개선을 했다.

미국내 각지부 23명의 평의원중 1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제3대 재미동창회장으로 李丙俊(59년 商大卒·부산파이프 아메리카사장)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사무총장에는 남가주상대동창회 부회장인 金性熙(71년 商大卒)동문을 선출했다.

또한 전임 姜洙祥회장과 金永基재단이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신임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학교 동창회의 일원인 것도 자랑스러운데 여러 동문들을 위해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영광』이라고 말하고 『각지역 동창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기사 참조)

7월1일부로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李회장은 남가주상대동창회장과 남가주동창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하와이지부 동창회

신임회장에 李載明동문

하와이支部同窓會(회장 全永杓)는 지난 2월18일 아라모아나호텔에서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회장에 李載明동문을 선출했다.

신임 李회장은 63년 모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석 부회장, 사무·총무·재무·출판 국장직을 신설하고 최고의결기관인 평의원수를 42명으로 하는 동창회 정관 일부를 개정했으며 기존에 없었던 회계년도를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로 의결했다.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트리폴러병원에서 군의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李회장의 주소는 4332 Kana-la Avenue, Honolulu, HI 96816이며 전화 808-735-5858이다. <變>

인터뷰

신임 李丙俊재미동창회장
“지역간의 유대강화에 진력”

할 것이며 둘째, 각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사업을 실행할 것이며 셋째, 미주지역 동문들의 전공, 특기등을 첨가한 「DIRECTORY」를 발간할 것이며 넷째, 신문 및 통신을 통해 각 지역동문간의 교류 범위를 넓혀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균형있게 회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총동창회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총동창회의 활발한 사업이 우리 동문들의 사회생활에 자극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희망과 책임을 일깨워 주고 있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21만 동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21만 동문들이 앞장서서 새시대에 걸맞는 문화를 창조하고 올바른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신임 재미동창회장이 되신 소감은—

『한국인으로 태어나 자타가 인정하는 많은 인재를 길러 낸 명문중의 명문인 서울대학교 동창의 일원인 것만도 자랑스러웠는데 이렇게 동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개인적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동창회 운영계획은—

『첫째, 재미동창회 상설 전화 및 FAX 전담인원을 두고 총동창회와 긴밀한 협력을

법대동창회 개교1백주년행사 성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선정, 「정의의 종」타종



총회를 마친 후 리틀엔젤스 예술단원과 기념촬영을 했다.

法科大學同窓會(회장 琴震鎬)는 지난 5월29일 롯데호텔에서 「개교 1백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孫一根이사(본보논설위원)의 경과보고에 이어李大源예술원 회장, 金道昶변호사, 李龍巖변호사는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에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李大源동문은 평생을 미술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헌신해왔으며, 金道昶동문은 공법분야의 이론과 판례를 체계화하는데, 李龍巖동문은 법률문화의 향상과 법률지식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고회, 회갑을 맞는 4회와 12회동기회는 축수패를 증정받았는데 특히 12회는 모교로부터 사물함을 기증한데 대한 감사패도 받았다. 또한 洪錫肇, 曹海根동문등 모범지부 간사 4명은 공로패를 수상했다.

同會는 이날 신입회원 환영식을 갖고 94년도 결산, 95년

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의의 종」타종과 「서울법대 백년의 발자취」라는 슬라이드 상영으로 시작된 2부 축하공연은 同會의 치밀한 준비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인 순서였다.

경대원동창회

李燦河회장 재선임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燦河)는 지난 5월24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金泓殖고문, 申榮九상임부회장, 張夢仁부회장, 金祐鎭간사등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회장인사, 崔鍾泰경영대학장의 축사에 이어 장학금 전달, 동창회보 발간등 동창회 사업보고가 있었으며, 94년도 결산

李東震동문의 축시낭송, 黃秉翼동문의 가아금연주에 이어 가수 崔喜準, 洪寅基동문의 열창은 동문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피날레를 장식한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특별공연은 이 행사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및 9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李逸均부회장, 韓宗憲상임이사, 柳民熙감사, 閔範植이사, 鄭南鎭간사, 芮致洙총무, 金在成편집위원은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의 주요안건인 임원개선에서는 李燦河회장이 재선임됐으며 다른 임원들은 추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자연대동창회

「자연대인의 밤」개최



李회장은 모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자고 말했다.

自然科學大學同窓會(회장 李龍兌·삼보컴퓨터회장)는 지난 22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자연대인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작년 10월 창립총회 이후 전체 동문이 한곳에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오늘의 수준에 오르도록 애써오신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부모님 은혜 다음으로 크나큰 은혜를 입은 모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자』고 말했다.

대학현황 및 동창회 사업보고를 받은 동문들은 만찬을 함께 들며 화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가수 崔喜準(59년 法大卒), 趙英男(64년 音大入)동문이 특별출연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사대동창회

기금 1억 달성키로



閔회장은 임기동안 동창회기금 1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師範大學同窓會(회장 閔丙峻)는 지난 5월27일 영등포 소재 동양맥주공장 회의실에서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閔회장은 「등산대회가 대성공을 거두는등 동문 여러분의 협조로 1년을 잘 보낼 수 있었다」면서 「현재까지 모은 동창회 기금 7천만원을 임기동안 목표액 1억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同會는 최근 취임한 張宗澤중앙교육연수원장, 權淳庸중앙일보이사, 趙惠玉서울사대부여종교장등 23명의 동문에게 축하화환을 전달하고, 李榮德정신문화연구원장, 丘仁煥·李孟成모교명예교수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志)

한대원동창회

명예회장제 신설

環境大學院同窓會(회장 박후錫)는 지난 5월25일 상록회관에서 林岡源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임원에 관한 회칙을 개정했는데 현재 4인으로 규정된 부회장을 약간명으로 하고 고문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고쳤다. 특히 명예회장제를 신설해 모교원장을 추대하고 동창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전임회장도 이사회를 거쳐 명예회장에 추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문의 경우 직전 동창회장은 상임고문으로,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도 이사회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신대원동창회

조찬간담회 가져

新聞大學院同窓會(회장 李濟薰)는 지난 10일 힐튼호텔에서 金學俊(단국대이사장)동문을 초청, 「최근의 북한동향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국제정치학과 남북문제에 걸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金동문의 강연은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며 다양한 사례와 배경설명이 곁들여져 회원들이 남북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마련해 「친목을 다지며 공부하는 동창회」「사회에 대한 역할을 다하는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상대19회

은사에게 「행운의 키」증정



申회장이 張禮準상대동창회장에게 「행운의 키」를 증정했다.

상대19동기회(회장 申英一)는 지난 5월27일 모교 문화관에서 졸업30주년기념 홈커밍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張禮準상대동창회장을 비롯한 여러 은사와 동문부부등 3백여명이 참석, 지난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서로의 우애를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金東建교수의 모교 안내를 시작으로 한 1부 기념식에서는 순금으로 된 「행운의 키」를 은사에게 증정, 그동안 못다한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모교 경영대와 사회대 경제학

부에 기념품을 전달, 모교사랑을 실천했다.

뷔페로 준비된 만찬을 끝내고 마련된 2부 「우정의 시간」에서는 30년전 그 시절로 되돌아가 서로의 장기를 뽐내며 흘러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달랬다. 또한 2부 마지막 순서로 하와이 부부동반 4박5일 여행권 추첨도 있었다.

화합의 시간으로 마련된 3부 「다짐의 시간」에서는 촛불의식 및 상대응원가를 부르며 영원한 상대인임을 확인했다.

독문과동창회

95년도 회원명부 발간

독어독문학과동창회(총간사 李鑾秀)는 지난 5월26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독문과 전체가 모인 첫모임으로서 원로동문과 준비위원들에 대한 소개, 간사단 선출 및 동창회 운영방법등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했

다.

독문과 동창회의 운영방법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회원을 분류하고 회장대신 각 기별간사 한명씩을 선출, 간사위주로 운영하며 연회비는 1인당 3만원씩으로 결정했다. 또한 회원명부는 1년에 한번 발행하기로 하고 95년도 회원명부를 발간, 배포했다.

법대18회

광복50주년기념모임

법대18동기회(회장 申昌燾)는 지난 15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을 가졌다.

작년부터 행해진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의 마지막 순서이기도 한 이번 모임에서 「통일을 위한 R이론」을 주제로申회장의 강연이 있었으며 동문들의 글 50여편이 수록된 「동문 수상집」과 기념앨범이 배포됐다.

섬유공학과동창회

결산 및 예산안 승인

섬유공학과동창회(회장 慶世浩)는 지난 5월30일 교수회관

에서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4년 결산 및 95년도 예산안 승인, 모교 오산 기념장서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치대39회

1박 2일 제주여행

치대39동기회(회장 韓榮)는 지난 6월17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여행을 다녀왔다.

졸업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치뤄진 이번 행사는 34명의 동기들이 그린관광호텔에 묵으며 골프를 치기도 하고 서귀포 중문을 관광하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도에서 개업중인 金益玄, 金原範동문의 많은 협조가 있었다. (泳)

耳順동문 테니스회

「산악관광회」조직, 등산 겸하기로

耳順동문테니스회(회장 李禮植)는 지난 6일 관악캠퍼스 교수코트에서 제17차 테니스대회를 가졌다.

古稀초와 耳順초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는 6명의 신입회원이 늘어 환영식을 겸해 치러졌으며, 金泰旭(33년 경성제대주)동문은 8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체력으로 고회조 우승을 차지해 회원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다.

회식후 鄭萬永동문의 일본名山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同會는 앞으로 산악관광회를 조직, 등산여행을 겸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의 수상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회조=우승: 金泰旭, 全兢烈동문, 준우승: 馬景錫, 曹曉



좌로부터 全兢烈, 金泰旭동문, 馬景錫동문, 李禮植, 崔妍嬋, 鄭萬永, 李泰浩동문.

▲이순A조=우승: 崔慶瀾, 李海遠동문, 준우승: 廉炯君, 權五均동문, 3등: 朴昌根, 韓宜洙동문.

▲이순B조=우승: 琴秉大, 曹二鉉동문, 준우승: 金衡泰, 趙勝鉉동문, 3등: 金明煥, 李昌健동문.

(志)

서울대 동문예고합

“더불어 함께하는 서울大人”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이건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 나라를 발전시켜가는데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는 엘리트집단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그 집단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것이 주로 서울대인들이고 그 구성원속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통합캠퍼스 뜻 살려야

매주 한번씩 모교에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관악캠퍼스의 넓디넓은 잔디밭 구석구석에서 종물놀이를 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보면서 그 옛날 뽀빠이 흩어졌던 캠퍼스에서

공부하며 통합캠퍼스 되기를 소망했던 나의 대학시절을 되돌아 보게 됐고, 이제 통합캠퍼스가 된 서울대인들이 얼마나 동질화되고 서로 동문의식으로 화합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흔히 서울대동문과 재학생들로부터 『학구적이고, 전문분야 연구발전에 있어서 우리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은 인정받지만 개인주의적인 경향과 미약한 동문의식으로 서로 협조와 인화가 부족하여 널리 이타적인 면에서는 소홀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이제 세계경제에는 새 질서가 들어서는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무한경쟁으로 힘을

겨루고, 약육강식의 불안한 현상이 뵈는 듯하다.

이는 우리끼리만 잘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세계는 모든 면에서 경쟁 원리가 적용되고 경제이윤원칙이 최고의 생활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냉혹한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한경쟁에 맞서는 무한경쟁이어야 하는가?

천당과 지옥을 비교한 어떤 일화가 하나 생각난다.

지옥에서는 영양실조로 바짝 마른 사람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서로 자기들 키만큼이나 길다란 수저



李康樞

(58년 藥大卒)국립보건원장

로 자기 입에 음식을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음식은 입에 들어가지 않았고 눈동자까지 충혈되었으며 휘청거리고 아수라장이었다.

한편 천당에서는 역시 자기 키만큼이나 길다란 수저로 서로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대화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다 맑고 밝은 웃음에 건강이 넘친 모습들이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또하나의 「너」

약육강식과 이기주의 원리가 지배해온 세계질서를 인류공영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가치로운 세계화의 노력속에서 우리 서울대인들의 의식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이며, 어떻게 한 뭉클 할 것인가.

이는 우리 서울대인들이 어느 분야에서든 더욱 동질화, 동문의식으로 고취되면서 내 이웃을 어떻게 수용하고, 내 이웃을 어떤 관계로 상호작용하며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넓혀가는데 비례하지 않을까?

「나」는 「나」만이 아니라 또하나의 「너」일진데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의 상대는 상호협력의 공동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서울대인들 한사람 한사람이 먼저 세계인으로서 내 이웃의 범위를 전 세계 인류로 넓혀 「더불어 함께 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학기에 시간강사 위촉을 받아 신문학과에서 가르쳤다. 2년만의 출강이었는데, 재학생들이 주는 인상이 더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 만난 재학생들이 92년 2학기의 같은 과 재학생들과 체질상 달라졌으면 얼마나 달라졌겠나. 2년 간격을 두고 성장하는 학생들이 이전 상급생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개성이라도 형성했다는 말인가. 딱 꼬집어서 말할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변화를 체감했다.

나는 강의시간에 기자의 체질을 표현하는 신문사 「격언」 몇구절을 학생들에게 던져 보았다.

『큰 일을 하려면 피와 눈물이 뒤따라야 한다』

『일을 만들어 하라. 아이디어가 없는 인간은 목석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고 한 시간 늦게 자는 것이 앞서가는 길이다』

각고면려(刻苦勉勵) 또는 하드워킹(Hard Working)을 미덕으로 삼는 이런 「말씀」을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짙막한 감상기를 써보라고 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응답내용을 통해 나는 변화의 한끝을 읽는 듯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식으로 기업소유주 입장

트리나무광장

安炳燦

시사저널 발행인



뛰는 재학생, 쫓는 총동창

(의식이든 무의식이든)에 바탕해서 한 말이다』

『대학입시 공부가 생각나는 말이다. 태평양 같은 출세길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은 인생에 당연히 필요한 자세를 이룬 것이다. 구태의연한 말씀, 당연한 말씀이라서 거부감 느낀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중요한 한 요소이기는 하겠지만 가족과 친구에 대한 의무도 있다. 무조건적

인 일벌레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경쟁사회를 기본전제로 한 채 개인(기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는(?) 인상이 짙다』

물론 학생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갖지는 않았다. 많은 학생이 기성세대의 「말씀」에 동의하고, 기자정신의 견지에 각고근면성이 필수불가결함을 인정한다. 다만 그들은 기성세대가 역사적으로 만들어낸 시행착오와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 소수 엘리트의 출세길만 보장하는 풍토가 남아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일벌레의 생활보다는 자유롭고 다채로운 삶을 동경한다.

2년 사이에 그들은 더 변했다. 그들의 변화를 감촉할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 「변화하지 않는」 이른바 기성세대체질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젊은 재학생들은 새로운 세대다. 새로운 세대의 변화주기는 매우 짧다. 그 속도는 달음박질한다. 같은 20대 안에서도 젊은이와 늙은이를 구분한다. 기성세대는 신세대를 따라가며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학교문을 나온 총동창회 소속 기성세대는 학교 안에 있는 신세대 후배의 빠른 변화를 알고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안될 터이다.

(본보 논설위원)



쓰레기 차와 나



鄭回甲 명예교수

지금부터 약 30년전 나의 조교 수시절, 4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때의 일이다. 거의 매일같이 있는 대·소음악회에 참석한 후 술 좋아하는 친구끼리 2차다 3차다 하며 해매고 다녔다.

그때는 밤12시면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차는 운행정지되며 行人은 검색을 당했다.

파출소도 무사 통과

音大교사가 을지로 6가에 있는 터라 그 근처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어느날 밤 신당동 네거리에서 사이렌 소리에 걸렸다. 사이렌이 울리자 그 많던 차는 다 사라져 버리고, 친구와 헤어진 나는 집이 뚝섬이라 왕십리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아무차나 잡아타고 가보리라」 마음먹고 가끔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돌아서서 손을 흔들어 보았다. 그 시간에 지나가는 차는 군용차나 신문사 차등이어서 손을 흔들어 보았자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체념하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덜거덕 덜거덕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쓰레기를 가

득 싣고 그 위에 천막천 같은 것을 씌운 고물트럭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조건 손을 허우적거리며 앞을 가로막고 서니 차가 멈추기에 『어디로 가는 차요』하고 물었다. 『한양대 밑으로 간다』고 하길래, 『나 좀 거기까지 태워다 주오. 사례를 하겠오』하니까 의외로 선선히 운전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앉았던 조수가 내려와서 『타라』 하기에 운전대에 올라갔다. 나를 운전수와 조수 사이에 앉히고 유유히 가고 있는게 아닌가. 나는 괜히 신이 나고 꽤 감같은 것을 느끼며 『뚝섬까지 간다』고 했더니 『이 차는 다리를 건너 「살고지」다리 위의 매립지로 간다』기에 『다리 건너서 내려주오』라고 부탁했고 다리를 건너 차에서 내리면서 그때 돈 5백원 짜리 하나를 조수에게 주었더니, 조수가 나에게 90도 각도의 큰절을 하고 좋아하는 것이었다.

거기부터는 내 동네라 파출소나 검문소 있는 곳을 피해 집에 도착하니 때는 새벽 1시반이었다.

통금시절의 낭만

이때부터 나는 통행금지도 겁이 안나고 쓰레기차를 이용하는 요령과 묘미를 알았기에 자주 쓰레기차를 이용하였고 자주 이용하다보니 웃지 못할 재미있는 사건들이 몇번 있었으나 지면관계로 이만 줄이기로 하겠다.

요즈음 쓰레기종량제라하여 쓰레기차가 좋아지고 그 고마움을 다같이 느끼지만 그 당시 나의 고마운 느낌에는 비할 바가 안되며, 그 당시의 쓰레기차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낭만(?)같은 것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시아버님과의 「잘된 만남」

申慈泳(88년 人文大卒·스페인 마드리드大 박사과정)



시계방향으로 시아버지 李承煥동문, 필자, 夫君 李基世동문, 시어머니 張熙子여사, 아들 李胤鎬군.

나와 남편(李基世 85년·工大卒)은 서로 다른 대륙에서 유학중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아버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91년에 아버님이 근무하시는 이화여대의 연구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아버님께서는 60년 문리대 英文科를 졸업하셨고 나는 88년 인문대 西文科를 졸업했다. 비록 같은과는 아니었으나 같은 학교 선배라는 점과 언어학이라는 전공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때문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졌고, 어색하고 사무적일 수 있었던 자리가 매우 부드럽고 편안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만남이 계기가 되어 아버님의 「求 며느리 작전」이 시작되었다.

「求며느리 작전」 개시

당시 나는 스페인의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유학중 잠시 귀국해 있던 상태였고 남편은 미국에 유학중이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으리라고는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버님의 적극적인 배려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나드는 교제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우리는 그 이듬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같은 계통의 길을 걷고 계시는 시아버지를 둔 며느리로서 나는 독특한 장점들을 누리는 것이 있다. 일년중 일정기간을 남편과 아들을 한국에 두고 스페인에서 보내야 하는 나로서는 아버님의 배려와 손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한 전공책을 소포로 외국으로 부쳐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논문원고를 새벽까지 일일이 한 줄한 줄 수정해 주시곤 하신다.

또한 손자 윤호가 태어났을 때에는 바쁘신 중에도 틈을 내

시어 미국으로 달려오시는가 하면, 며느리 생일에 꽃다발과 케이크를 배달로 보내주시는 멋쟁이 시아버님이시다. 손자에 대한 사랑도 특별하셔서 자애로운 할아버지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

꽃다발 주시는 멋쟁이

금년은 우리 가족에게 참으로 뜻깊은 해이다. 아버님과 어머님 두분께서 금년에 나란히 회갑을 맞으시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이 원하던 교직에서 일하게 되었고 시누이 내외(李基廷 86년·音大卒, 金眞求 86년·工大卒)가 미국에서 같은 시기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어 오래간만에 온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된다.

아무쪼록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아버님의 일에 대한 정열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자세를 본받아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될 것을 다짐해 본다.

朴振煥 신임 농대동창회장

컴퓨터에 능숙한 半농민

“흙에서 멀어지면 썩은 학문”

『진리는 흙에 있습니다. 농학문을 하는 사람이 흙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썩은 학문을 하는 것이지요』

해방이후 학교를 다닌 첫 동창회장이라는 朴振煥(52년卒·前농협전문대학장)신임농대동창회장은 농학이라는 학문이 띠는 특이성때문에 농대동창회도 다른 단과대동창회와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농대를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흙과 관련져 살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몇만원씩의 회비를 내라고 하는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신회비 십만원, 년회비 만원씩을 받고 있지요. 만원씩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낸다면 큰 돈이 되지 않을까요』

薄利多賣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명부과목이 잘되지 않아 회비를 내는 회원은 1천6백여명 정도. 93년도에 3~4백명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이지만 그래도 농대졸업생수에 비하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내년이면 농대가 90주년이 됩니다. 90주년 기념으로 졸업생들이 쓴 첨단 농업기술논문들을 모아 논문집을 내고 싶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기념품도 되니 1석2조의 효과가 아니겠느냐는 차회장은 농민과 동떨어진 행사는 하고 싶지 않다는 半농민이다.

교직에서도 항상 농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학문을 하라고 가르쳐왔는데, 지금은 자주 눈에 나갈 수가 없어 그것이 가장 아쉽다는 차회장.

컴퓨터를 켜며 하루를 시작하는 차회장은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기능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컴퓨터맨이다. 점점



쇠퇴하는 기억력을 보충하기에는 제격이라며 컴퓨터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차회장이지만 부인이 배우기 전에는 거들떠도 안봤다고.

강의가 없는 날은 부인이 손수 그린 작품들로 둘러싸인 집안에서, 컴퓨터와 책 그리고 정원수들을 가꾸며 하루를 보낸다는 차회장은 정년퇴임이후 하루가 더 짧아졌다고 한다.

(泳)

동문을 아시

金讚淑 신임 치대동창회장

“동문은 동지이며 친구, 가깝게 지내야”

여자치과의사협회장도 지내

『나이가 보나 그동안의 관례로 보나 제가 회장이 될 상황은 아니었어요. 침체돼 있는 동창회를 지켜본 많은 동문들이 변화를 원했던 것 같아요』

교육개방을 앞둔 요즘 모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세계화를 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동창회도 예전처럼 단순한 친목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모교 지원사업을 벌여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金讚淑(60년卒·청아치과병원장)회장은 『이러한 내적, 외적 요구에 의해 선임된 이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모교 발전을 돕고 동문들의 변화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동창회에서 마음이 멀어진 동문들을 다시 모으는 일입니다. 기별모임이나 지부모임에 좀더 관심을 쏟고 모교와 협의해서 학술발

표회등을 마련할 생각이예요. 자주 만나다보면 자연스럽게 동창회나 모교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치과의사였던 이모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金회장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68년 귀국해 연세대학에서 전임강사로도 활동했다. 초창기에는 『김찬숙치과의원』을 운영했는데 실무적인 공부를 원하는 후배들이 많은 것을 알고 병원을 확장, 현재의 청아치과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개업했다.

10여년간 치대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모교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온 金회장은 『열심히 그리고 보람있게 살자』는 것이 좌우명이라고.



『동문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한가지 밖에 없어요. 같은 길을 걷는 동지로서, 또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로서 좀더 가깝게 지내자는 거지요.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모교를 도울 수 있으면 더 바랄게 없어요』

金회장은 치과협회 국제이사, 여자치과의사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경기여고44회 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志)

동정

수상

▲崔鍾賢(50년 農大入·선경그룹회장)=6월4일 미국 시카고대 북펠러대 성당에서 시카고대를 빛낸 올해의 동문대상을 받았다.

▲鄭根謨(59년 文理大卒·과기처장관)=6월4일 미국 뉴욕주 폴리테크닉대에서 과학기술발전 및 국제과학기술 협력에 공헌한 공로로 명예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趙來承(60년 工大卒·아시아자동차사장·本會理事)=지난 5월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朴性寬(62년 醫大卒·서울백병원 산부인과교수·本會理事)=지난 5월15일 제1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郭英哲(65년 農大卒·동아건설산업 부사장·本會理事)=5월23일 무주현지에서 거행된 무주양수발전소 건설준공 및 발전설비 3천만KW 돌파 기념행사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李大遠(65년 商大卒·삼성향공사장·本會理事)=지난 5월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金祿皓(82년 醫大卒·사당의원장)=최근 「하버드대 알베르트 슈바이처상」을 수상했다.

이동·선임

▲姜晉佑(56년 商大卒·롯데백화점사장·本會理事)=6월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49차 대륙간 백화점 협회 연차총회에서 아시아 지역부회장으로 선임됐다.

▲韓斗鎭(56년 醫大卒·한국병원장·本會理事)=최근 국제병원연맹 부회장에 선출됐다.

▲趙中衡(58년 文理大卒·前서울지방국세청장·本會理事)=최근 웅진그룹부회장으로 선임됐다.

▲金鎮炫(58년 文理大卒·한국경제신문회장·本會理事)=5월23일 서울시립대 대학의실에서 제3대 총장에 취임했다.

▲張永壽(59년 工大卒·대우건설회장)=6월12일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대한펜싱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李升煥(59년 法大卒·駐그리스대사)=5월15일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감사로 취임했다.

▲李敦熙(60년 師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5월31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에 임명됐다.

▲高周伯(60년 商大卒·반도여행사사장·本會理事)=5월24일 서울 청진동 진화회관 606호에 사무실을 개설했다. T:736-8581

▲沈同魯(62년 農大卒·산림청임업정책국 보호과장)=지난 5월 농림부 이사관으로 승진했다.

▲金奎圭(62년 商大卒·前기업은행 부행장·本會理事)=6월3일 중소기업은행 자회사인 한국기업리스 사장으로 선임됐다.

▲金世澤(63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5월16일 駐오사카 총영사에 임명, 발령됐다.

▲崔仁永(65년 工大卒·한국가스안전공사부사장)=6월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장에 임명됐다.

▲邊炯(65년 文理大卒·재정경제원감사관·本會理事)=최근 세무대학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申仲植(66년 文理大卒·시사저널·TV저널 편집인)=최근 남성실용전문월간지 「THE MAN」의 편집인을 맡아 6월20일 창간호를 펴냈다.

▲趙健鎬(66년 法大卒·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3조정관·本會理事)=최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2조정관으로 임명됐다.

▲黃鎭浩(66년 法大卒·변호사·本會理事)=5월25일 서초구 서초동 1705(법원 검찰청 정문앞) 정곡빌딩 서관 413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했다. T:533-0755~6

▲朴範榮(66년 行大院卒·前국방부감사관·本會理事)= 지난 4월 고려합섬그룹 고합물산 상임감사로 취임했다.

▲丘月煥(67년 文理大卒·연합통신 기사심의실장·本報論說委員)= 최근 연합통신 출판국장으로 전보·발령됐다.

▲金錫友(67년 法大卒·청와대 의전비서관·本會理事)= 6월1일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다.

▲李燦河(67년 經大院卒·신한회계법인대표·經大院同窓會長)= 지난 5월 25일 법무부 보호선도위원 중앙회 회장에 선출됐다.

▲印敬錫(68년 法大卒·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本會理事)= 최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3조정관으로 임명됐다.

▲成熙雄(69년 文理大卒·국세청감사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했다.

▲徐相賢(70년 工大卒·한국기계연구원장·本會理事)= 최근 열린 한국기계연구원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제7대 원장에 재선임됐다.

▲南相宇(73년 行大院卒·내무부공보과장·本會理事)= 최근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梁祥泰(75년 行大院卒·前국방정신교육원장·本會理事)= 5월20일 국방부 제1차관보에 임명됐다.

▲李順浩(83년 法大卒·변호사)= 최근 의정부시 가남1동 367-2 삼형B/D 4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했다. T: 871-8787

행사·출간

▲沈鍾燮(41년 農大卒·前농대 동창회장)= 6월4일부터 13일까지 중국 과학원에서 주최하는 제18차 태평양과학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李定均(52년 醫大卒·모교 명예교수)= 5월17일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정신의학회에서 「한국 정신장애의 역학적 조사연구」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5월20일부터 25일까지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48차 미국 정신의학회에 참석했다.

▲田道學(55년 法大卒·부산상고총동창회장·本會理事)= 지난 6월4일 부산상고에서 개교 1백주년을 기념하고 「시립 백양국제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총동문회를 개최했다. 1895년 개교한 「부산상고」는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등기관으로서 역할을 왔다.

▲金哲洙(56년 法大卒·한국법학교수회장·本報論說委員)= 지난 5월26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95년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孫在植(56년 法大卒·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장·本會理事)= 6월8일 同校 평화복지대학원에서 「남북한 평화체제확립의 여건 조성」에 대한 학술토론회 개최.

▲高炳佑(56년 商大卒·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本會理事)= 6월9일 국토개발연구원 강당에서 「세계화·지방화시대의 국토개발전략」을 주제로 공개특강을 실시했다.

▲河斗鳳(56년 文理大卒·광주과기원장·本會理事)= 6월7일 광주 과기원 정보통신공학과 강당에서 시민 2백여명을 대상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尹銘重(57년 文理大卒·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本會理事)= 지난 5월 26일 여의도 63빌딩 글로리아홀에서李洪九국무총리를 초청 「세계화시대와 지방화시대」는 함께 오는가?」라는 내용의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金昌達(57년 商大卒·한국종합기술금융사장·本會理事)= 6월14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13차 세계연구개발지원기구연합회 서울총회 개최식을 가졌다.

▲趙英濟(58년 美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6월5일 호텔신라에서 한국그래픽디자인 30년을 결산한 「조영제의 그래픽세계-이상과 현실의 조화」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金 應(58년 法大卒·前부총리겸 통일원장관)= 6월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청으로 「북한체제의 장래와 남북한 관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沈憲燮(60년 法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6월10일 연세

대 알렌관에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현대적 전개양상」을 주제로 춘계발표회를 가졌다.

▲南世鎭(60년 大學院卒·모교교수)= 6월9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회갑기념저서 「한국 사회복지의 선택」(나남출판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韓宗相(60년 文理大卒·한국방송통신대총장·本會理事)= 6월8일 경남 창원 알뜰생활관 대강당에서 창원 YMCA초청으로 「세계화시대

동창회기금 3백만원 출연

尹世榮동문



本會尹世榮(61년 法大卒·서울방송회장) 부회장은 지난 23일 본회에서 추진중인李鴻烈사 홍상제작 및 관련사업에 써달라며 동창회기금

으로 3백만원을 출연했다. 본會에서는 광복 50주년과李鴻烈사 88주기를 맞이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한민족대회에 한성법관양성소 제1회 졸업생인李鴻烈사의 홍상을 제작, 기증기로 한 바 있다.

한국인 최초「홈볼트 연구상」수상

文仁炯동문



文仁炯(64년 文理大卒·한양대교수)동문은 한국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독일의 홈볼트재단에서 수여하는 홈볼트 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본인의 응모가 아닌 저명한 독일학자 또는 추천인단의 추천에 의해서만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 이 賞은 독일 국내의 전문학자들에 의한 평가와 재단선발위원회의 최종적인 선발에 의해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文동문은 텅스텐금속의 활성화소결에 대한 기구해석 및 응용연구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재료분야의 연수 및 교육성과를 인정받아 이 賞을 수상하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취임

金鍾悅동문



연세대 치대교수인金鍾悅(66년 齒大卒)동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임명됐다.

치과의사로서 첫 국립기관

기관장으로 발탁된 金동문은 「한강나룻터 여인피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연구소 의무기좌로 3년 7개월간 근무, 연대 치대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자문위원으로 법의치과학분야를 담당해왔다.

(泳)

시민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金載姪(60년 美大卒·화가·本會理事)=6월6일부터 14일까지 스리랑카에서 열린 기독교 미술제에 참가했다.

아시아기독교 연합회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하나님 안에서 아세아에 평화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기를」이란 주제로 한 작품과 함께 우리나라 기독교 미술에 관한 상황보고를 했다.

▲梁承澤(61년 工大卒·한국전자통신연구소장)=6월8일 고려대 서창캠퍼스 자연과학관 대강당에서 「제8차 정보문화의 달」 기념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表世振(62년 文理大卒·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本會理事)=5월31일 모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특강.

▲成耆點(62년 美大卒·한성대강사)=6월8일부터 21일까지 한전프라자 갤러리에서 개인전 개최.

▲崔時仲(63년 文理大卒·한국갤럽조사연구소회장)=6월5일부터 8일까지 서울워커히호텔에서 세계 46개국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갤럽조사연구회를 개최했다.

▲柳莊熙(63년 商大卒·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本會理事)=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APEC자문기구인 저명인사(EPG)회의에 참석했으며 또한 독일 헬무트 슈미트 前수

상과 TV대담을 했다.

▲金基完(64년 法大卒·대한부동산건설링대표)=5월31일 세계 최고 권위의 부동산 카운셀링 전문가단체인 A-SREC에 국내 최초로 정회원에 가입했다.

▲崔秉烈(64년 法大卒·서울시장·本會副會長)=6월9일 한국가족학 연구회와 공동으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가족상-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姜雄植(64년 商大卒·아메리칸스탠더드코리아부사장)=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백상기념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이 기획한 제1회 「名士미술전」에 작품을 출품, 전시했다.

▲白淙鉉(65년 商大卒·서강대교무처장·本會理事)=6월10일 서강대 경영관에서 「제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한국기업의 도약」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李鍾一(65년 音大卒·이스턴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겸 지휘자)=6월20일 연세대 백주년기념콘서트홀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孔錫英(66년 敎大院卒·동덕여대교수)=6월3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청소년 통일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安淸市(67년 文理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6월7일부터 10일까지 모교 문화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세계화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李承玲(71년 美大卒·화가)=6월16일부터 22일까지 경인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鄭光善(71년 文理大卒·중앙대교수)=6월9일 모교 선경관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 및 「기업재무의 신조류」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朴沆律(74년 美大卒·화가)=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낙산갤러리에서 조각전을 가졌다.

▲韓蕙慶(79년 美大卒·화가)=5월29일부터 6월7일까지 갤러리 이콘에서 두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金 峰(79년 音大卒·뉴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6월7일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제2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鄭致溶(83년 音大卒·한국종합예술학교)=6월13일 호암아트홀에서 마드리 실내악단의 객원지휘로 제22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金惠林(85년 美大卒·화가)=5월25일부터 6월3일까지 이목 화랑에서 제5회 청담미술제의 초청을 받아 전시회를 가졌다.

▲金娟敬(89년 音大卒·피아니스트)=줄리어드 음대에서 음악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6월21일 호암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정리=金愛泳기자〉

지방광역단체장 선거 趙淳동문등 9명 당선

지난 27일 서울시장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한 4대지방선거 결과 9명의 동문이 광역단체장에 당선되는 쾌거를 올렸다.

부총리와 한은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趙淳(49년 商大卒) 동문은 서울시장에 당선됐으며 대구시장에는 청와대경제수석 비서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文熙甲(66년 行大院卒) 동문, 인천시장에는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낸 崔箕善(73년 法大卒) 동문, 광주시장에는 전남도지사, 체신부장관을 지낸 宋彦鍾(60년 法大卒) 동문이 당선됐다.

한편 경기도지사에는 2선 국회의원으로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李仁濟(72년 法大卒) 동문, 강원도지사에는 부총리를 지낸 崔珏圭(57년 文理大卒) 동문, 충북도지사에는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朱炳德(79년 行大院卒) 동문이 당선됐다.

또한 대전시장·충남도지사, 청와대행정수석비서관을 지낸 沈大平(66년 商大卒) 동문은 충청남도지사, 5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최고위원, 국회부의장등을 역임한 許京萬(65년 司大院卒) 동문은 전남도지사에 당선돼 모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였다.

柳洪烈동문 별세

위원회를 창설했다.

학술원 원로회원인 해암 柳洪烈(35년 京城南大卒) 동문이 6월14일 서울중앙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柳동문은 정치사 위주의 한국사연구에서 사상사·문화사 분야를 개척했고 한국 천주교 회사를 정리했다. 또한 해외학계에 한국학을 소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57년 국제역사학회에서 한국학 분과

廉永夏동문 타계

모교 명예교수이자 한국법종연구회 회장인 廉永夏(67년 大學院卒) 동문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廉동문은 석굴암 대중, 직지시종등 8구의 범종을 제작한 한국법종의 최고권위자로 「한국의 종」을 비롯한 2백여권의 저서와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알려드립니다

동창회보의 동정란은 동문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동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서슴치 마시고 회보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때 기사는 FAX를, 사진은 등기우편을 이용해 주시면 좀더 신속히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편집부

전화 : 702-2233 FAX : 703-0755



미국 남북전쟁 끝나는 해에 설립

사회과학 분야등 30여 연구기관 명성 떨쳐

코넬대학이 지금으로부터 1백30년전인 1865년에 설립된 때는 4년여의 긴 세월동안 계속되어 온 미국의 남북전쟁이 종말을 고할 당시였다. 설립자인 Ezra Cornell과 Andrew Dickson White는 당시 매우 혁신적인 교육관을 갖고 대학설립을 구상하였는 바 가장 미국적인 특성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할 뜻을 세웠던 것이다.

지난 6월9일 자유중국의 李登輝총통이 모교인 코넬대학의 초청으로 학교 내 뉴먼 실내체육관에서 수많은 내외 귀빈과 학교관계자 및 동창들 앞에서 특별기념강연을 한 사실은 미국의 대동북아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접치게 한다는 뜻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적 의의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코넬대학은 미국의 10대 명문사학의 Ivy League대학으로 성장하여 그 명성은 온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림같은 전원캠퍼스

코넬대학 본교캠퍼스는 뉴욕주 북부 도시인 Syracuse로부터 남쪽 약 1백 km 떨어진 대학도시 Ithaca에 위치하고 있다. 7백40acre(90만평)에 달하는 대학캠퍼스의 그림같은 경관은 우리 한국유학생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언제나 중앙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면서 석양에 울리는 도서관의 종소리를 들으며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고 때로는 캠퍼스내 대학교회에 찾아가 혼자서 기도했다. 학교앞에 펼쳐지는 Cayuga호의 아름다운 절경은 특별히 뛰어난 곳이다. 이 Cayuga호는 여러개의 Finger호와 함께 그 지역의 명물이다.

학교시설은 총 4백68동의 각종 학교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는 역사적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건물도 여러동이 있다. 대학에는 15개의

크고 작은 각종 전문별 도서관이 있는데 5백10만권의 장서, 4백80만장의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6만1천여종의 각종 학술잡지들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유명한 Johnson미술관과 두개의 천체 관측소 그리고 1백80acre(2백20만평)에 달하는 조류보호지가 있다.

코넬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의 교과목은 항상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코넬대학에는 13개의 주요 학부 및 대학원이 있고 30개소가 넘는 수많은 주요 연구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것이 많다. 학부 대학 가운데는 4개 대학이 뉴욕주립대학으로서, 농학 및

생명과학대학, 인류생태학대학, 노사관계대학 및 수의과대학등이 있으며, 기타는 모두 사립재단대학으로서 문리과 대학과 대학원을 비롯하여 공과대학, 호텔경영대학, 건축예술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원등이 있다. 호텔경영대학은 세계적인 명물이다. 특히 유명한 의과대학과 동대학원은 본교 Ithaca캠퍼스와는 별도로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다.

코넬대학의 명성은 각 분야마다 특색을 갖고 있으나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그 우수성이 오늘날 더욱 널리 알려져 있어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들은 미국전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모인 영재들로서 중상류가정의 자녀들이 아니면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학생수는 전체로 약 2만명 이상이 매학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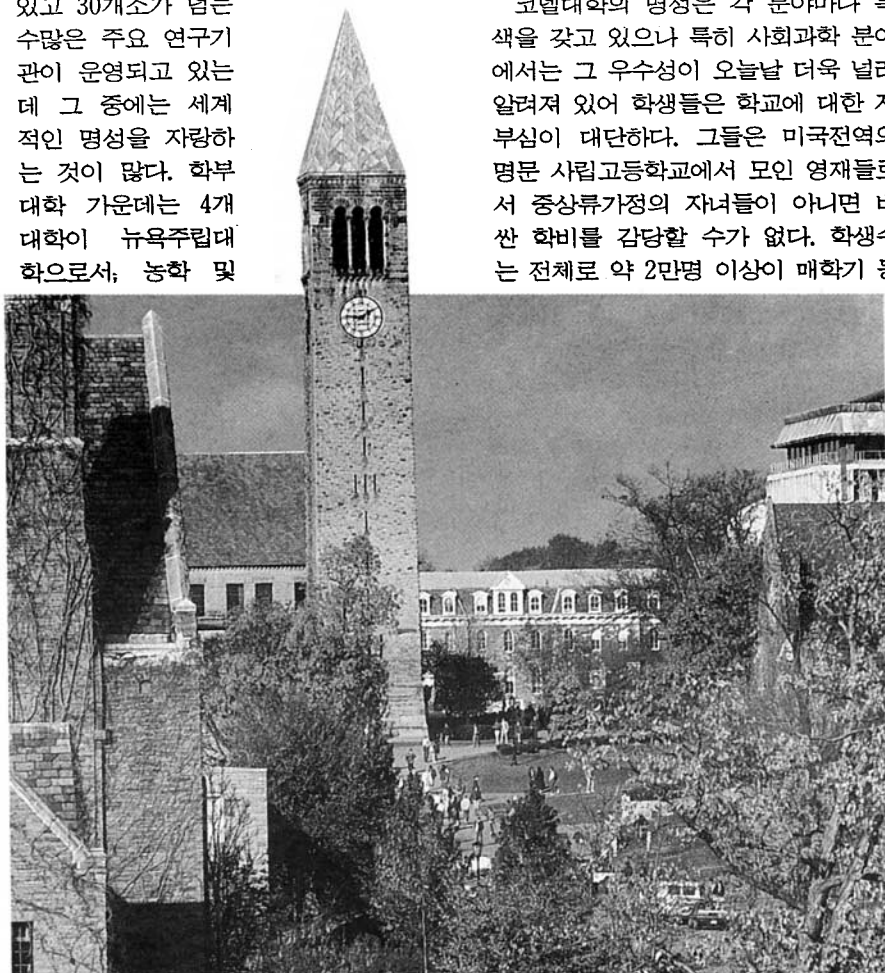
록하고 그 중 여학생의 수는 40%를 넘는 바 그야말로 뛰어난 재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다. 외국학생의 수도 전체의 약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각 교실마다 진행되는 교수와 학생들의 불꽃튀는 토론은 이 대학의 전통이요, 그 칼날같은 예리한 논리와 철저한 검증은 학생들의 높은 자질과 정열을 말해준다. 매학기마다 다양한 교내 학술강연회는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 삶의 길잡이가 되고, 또한 캠퍼스의 음악회나 특별연주회는 학생들의 정서 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수많은 각종 체육시설들은 학생들이 언제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마련돼 있다.

서울에 3백명의 코넬클럽

현재 서울에는 약 3백명에 가까운 회원들로 구성된 코넬클럽 동문회모임이 있어 한국에어터치사의 朴憲緒사장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신 林岡源박사가 그 회장과 부회장직을 맡아 수고하고 있다. 역대 회장으로는 한국기구의 崔基崑회장, 梁潤世 前동자부장관, 咸泰桶한국장기신용은행 명예회장과 서울대 법대의 宋相現교수등이 있고 故 申泰煥 前서울대총장이 생전에 언제나 함께 참석해 주시던 모임이었다. 동문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역시 학계에서 교편과 연구생활을 주로 하고 있다. 그 중 서울대 사회학과의 金璟東박사와 서울대 농대의 韓仁圭박사, 정신문화연구원의 具範謨박사, 성애의료재단 명예병원장 金舜鎭박사, 단국대 金東熙박사, 연세대의 金正洙명예교수등이 있다.

禹在昇(55년 法大卒)

세계자유민주연맹 사무총장



코넬대학캠퍼스의 그림같은 경관은 한국유학생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기뻐하던 윤씨의 모습

姜信孝(70년 保大院卒)동충한의원장

작년 봄의 일이다.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전화가 걸려 왔다. 10여년 전부터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환자 윤씨였다.

사연인즉 윤씨의 둘째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시험에도 통과하고 비자까지 받는등 수속을 다 마친 상태인데 건강이 나빠서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사자인 아들은 그냥 가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모양이었다. 어렵게 공부를 하고서도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윤씨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머니 입장에서 유학보다 아들의 건강이 우선인 것이었다.

식중독 재발로 유학에 차질

발병사인은 이러하다. 지난 92년 가을쯤에 새우로 요리한 음식을 먹은 것이 식중독을 일으켜서 그 간에 3차 진료기관인 「K의과대학 부속병원」, 「C의과대학 부속병원」 등 몇 군데의 종합병원을 다니며

간신히 치료를 했다고 한다. 상태는 호전됐고 다 나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근간에 다시 재발이 되어서 그런지 식은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기운을 도통 차리지 못해 누워 있고만 싶다는 것이었다. 생선류를 먹거나 피부에 다른 물건이 닿기만 하면 어김없이 손바닥만한 붉은 두드러기가 온몸에 생겨 무척 괴로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날, 윤씨가 아들을 데리고 진찰을 받으러 왔다. 그 아이는 전혀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180cm가 넘는 키, 90kg이 넘는 건장한 체격에 잘 생긴 청년이었고 겉으로 보아서는 매우 건강해 보였다. 진찰을 해보니 임상적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식중독 후유증세가 분명했다. 그 청년은 몹시 피곤해해서 그 덩치에 단 1kg짜리 물건도 들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온몸은 땀에 젖어서 이마와 손에 흐르는 땀은 주체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과연 그 어머니의 말대로 그 상태로는 미국유학은 커녕 지방에도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몸이 가려워서 긁으면 두드러기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고 가끔

긴장하는 일이 있으면 어지럽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탕약 복용으로 완쾌



진찰 후, 한방약 「가... 소산」이라는 탕약을 지어 복용케 했다. 5, 6일 지나자 잠이 잘 오고 덜 가렵다고 해서 계속 복용을 하게 하니 가렵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땀이 덜 나고 기운이 차차 생겨 기분도 호전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 약을 2재(20일분) 복용케하고 나서 재진찰 해보니 그 청년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아진 것으로 판명됐다. 그 어머니는 그제서야 희색이 만연해져 병을 고쳤으니 이국만리 객지에서 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그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들을 보면서 나는 의사로서 또 한번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청년이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이 사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범인을 잡아달라”

李枝馥(58년 醫大卒)피부비뇨기과의원장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여 안락한 생활을 즐기려는 현대인에게 제일 큰 관심거리는 성과 건강일 것이다.

어떻게하면 성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하면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특히 성은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쏟아지는 대중잡지, 소설, TV, 비디오, 영화등은 끊임없이 성의 욕구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별 희한한 정력 보강법이 아무 스텝없이 신문잡지에 매일 오르고 있다.

비뇨기계통의 환자는 웬지 쑥스럽고 창피한 느낌이 든다며 자신의 병을 숨기려는 경향이 짙다.

뒷문으로 와서 가명 적어

성병환자의 경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그런 경향이 아주 두드러진다.

그래서 누가 감새라도 첼세라 낮보다는 컴컴한 저녁에, 앞문보다는 뒷문을 찾아서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병원을 드나들기도 한다. 정작 병원에 들어오면 진짜 이름을 대지않고 가명에 가짜 주소까지 대었다가 몇달 몇년 후에 와서는 그 때 댄 이름이 생각이 나지않아 발각이 되는 경우가 옛날에는 꽤 있었다.

더 심할때는 가짜 전화번호까지 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요즘은 의료보

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가짜이름을 대는 분은 거의 없다.

부끄러운 병일수록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물론 비뇨기계통의 병자체는 부끄러운 병이 아니고 오직 그 원인이 부끄러울 뿐이다. 병은 조기에 치료를 해야지 오래두면 합병증으로 일생 고생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S사장 수첩의 L양이...

임질의 경우 남자에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것이 후부요도를 통해서 전립선에 가거나 부고환으로 번지게 된다. 만일 양측 부고환에 가면 임신을 못하게 된다. 물론 요즈음은 항생제가 좋아서 옛날에 비하면 거의 없는 편이다. 또 전립선에 가면 전립선염을 일으킨다.

이 병은 잘 낫지 않으므로 일생 고생을 할 수 있다. 여자에서 임균이 질에 있으면 질 분비물이 다소 나올 뿐 아무런 증상이 없으므로 오랫동안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팔관이 막혀서 임신을 할 수 없게 된다.

매우 가깝게 지내는 S사장이 찾아왔다. 성병에 걸린 것 같으니 범인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내용인즉 수첩을 꺼내더니 3일전에는 P양과 5일전에는 L양과 10일전에는 K양과 사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고름이 나오고 소변을 볼 때 아프다고 한다. 임질의 잠복기는 보통 2~7일이므로 날짜를 따져보니 K양은 아닐 것 같고 P양이 아니면 L양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 S사장 왈, P양은 대학생으로 몇달전부터 거의 매주 만나다시피하니 아닐 것이라 고 한다. 그럼 P양을 빼면 L양일 가능성이 높다. L양은 모 회사원으로 그날 처음 사랑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L양을 S사장이 겨우 설득해 진찰을 하니 진범으로 밝혀질 수 밖에.

창백한 얼굴의 그녀

任徹中(67년 齒大卒)치과의원장



칠십년대 중반은 신생 충남대학병원의 활기가 넘치는 시절이었다. 내고장 유일의 의과대학이라는 애착이 있었고, 초창기에는 유능하고 응집력있는 교수진이 중요하다하여, 되도록 서울대학교 동문들을 유치하자는 것이 몇몇 교수들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전역예정인 동문에게 술을 퍼먹으며 감언이설로 꾀어낸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그런 노력은 꽤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게 모인 주니어 스튜드의 분위기는 부드러운 수박에 얹어 일과 후의 테니스와 이어지는 다찌노미 한잔으로 늘상 어울렸다.

임원 사흘만에 숨져

당뇨나 신장질환 또는 혈액성질환자는 구강내에 병변을 보이는 일이 적지 않은데, 임원환자를 대하다보면 이런 소견을 더 자주 보게 된다.

언젠가 수술실 간호사 L양이 치과에 왔다. 격심한 치통을 호소하며 발치를 원하는데 학생때부터 얼굴이 익은 그녀는 한눈에도 병색이 완연했다.

이런 경우 파를 보는 처치(Surgical Intervention)부터 시작하면 안된다는 상식을 되새기며 구강내 視診을 했다.

변연치은 종창으로 쉽게 출혈하고 부착치은에 검푸른 자반과 궤양이 몇개 보였다. 즉시 혈액검사 지시와 함께 내과에 의뢰했다. 내과에서는 바로 입원을 시켰으나 그녀는 사흘만에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무과립구증(Agranulocytosis)에 의한 패혈증으로 기억한다.

충격끝에 교훈 얻어

인력과 시설이 모자란 형편에 그녀는 심한 몸살과 과로에 시달려, 피린

계열의 진통제를 투여해가며 한달 가까이 버텼다고 한다. 과로와 약물과 사망원인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그때 두가지 충격을 받았다.

첫째, 같은 직장근무자로서 그녀의 요청대로 발치를 한 뒤 일이 생겼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것. 가까운 사람일수록 환자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자세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둘째는 의료업 종사자 누구나가 자신의 건강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해지기 쉽다는 것. 너무나 눈에 익었기에 후진하는 아빠의 트럭 뒤로 아장아장 걸어들어간 아기처럼, 자기자신의 건강 체크에 소홀해져서는 안되겠다.

초가을이면 창백한 얼굴에 서글서글한 눈동자, 그리고 아직은 여드름의 흔적이 가시지 않았던 옛된 L양의 얼굴이 문득 떠오른다.

모교소식

「첨단정보 연구 공원」 조성 한국이동통신 3백억 출연



모교 李壽成총장은 지난 7일 한국이동통신 孫吉丞부회장(사진左)과 모교가 추진중인 첨단정보통신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공원(Research Park)」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약정식을 체결했다.

한국이동통신은 오는 97년 말까지 3백억원의 기부금을 출연, 3천평의 부지에 최첨단 「정보통신 연구동」을 건립, 모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 연구공원에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주, 연구할 수 있는 4천6백평 규모의 「인큐베이터 연구소 및 공동지원시설」과 유엔개발계획(UNDP)이 우리나라에 건설기로 한 국제백신연구소(IVI)도 입주할 예정이다.

연구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1일 LG그룹이 3백억원의 기금을 출연키로 한데 이어 한국이동통신이 두번째로 참여함에 따라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대원 「정보통신관」 준공

姜敏求동창회장 발전기금 내놔

행정대학원(원장 鄭正佑)은 지난 20일 景商鉉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 1백여명의 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행정관」 준공식을 가졌다.

앞으로 정보통신행정관에서는 정부부처의 서기관급 이상과 민간기업의 정보통신분야

중견간부들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정보통신정책과정을 운영하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서 姜敏求행정대학원동창회장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했다.

포항종합제철

석좌기금 10억 출연

지난 6월1일 포항종합제철(회장 金滿堤)은 제어계측 및 토목공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모교에 「POSCO석좌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이 기금의 운영소득은 POSCO연구교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비로 쓰이게 된다.

미술대학

「졸업미전」 개최

미술대학(학장 崔滿麟)은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95학년도 학사과정 졸업미전 및 94학년도 후기 석사학위전을 개최했다.

이중 학사과정 작품은 미술대학 구내에, 석사과정 작품은 박물관 현대미술전시실에 각각 전시했다.

신임 병원장

李迎雨교수 취임



지난 5월31일자로 모교 병원장에 李迎雨(60년 醫大卒) 내과교수가 취임했다.

韓萬靑병원장의 후임으로 제10대 병원장에 취임한 李교수는 68년 모교에 부임한 후 줄곧 순환기내과분야에서 진료를 계속해왔으며 대한순환기학회 이사장, 亞·태심장학회 사무총장, 합춘후원회 회장등을 역임했다.

사회과학대학

98년 「정보센터」가동

사회과학대학(학장 金世源)은 오는 98년까지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과학정보를 집적,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전산망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급하는 전자도서관 형태의 첨단 「사회과학정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1백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정보센터 신설사업은 지난 3일 에스콰이어(회장 李仁杓)가 모교에 20억원의 기금을 출연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모교는 각종 사회과학 학술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바꾸는 전자도서관 설립을 위해 올해 말까지 근거리통신망등 기반설

비를 갖추고 96년에는 정보센터 기초전산화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이어 97년까지 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 98년부터는 정보센터의 실제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정책과정 개설

환경대학원(원장 林岡源)은 8월26일부터 주요정책과정이 참여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환경 정책고위과정을 개설한다.

교과과정은 계획과 관리,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계획·설계·개발, 교통 및 사회간접자본, 환경, 조경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수기간은 4개월이다. 원서접수는 7월24일부터 8월8일까지이다. (雙)

공대 「자랑스런 동문상」 시상 張潤一동문등 3명 영예안아



좌로부터 韓학장, 李潤雨동문의 부인 權寧玉여사, 張潤一, 尹鍾龍등문.

공과대학(학장 韓松曄)은 지난 21일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제3회 「자랑스런 공대동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張潤一(64년卒·美아르곤국립연구소 IFR사업단장)동문은 군사용 플루토늄 축적 연구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尹鍾龍(66년卒·삼성전관사장)동문은 삼성전자·삼성전관에

근무하면서 두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체로 키우는데 기여한 공로를, 李潤雨(69년卒·삼성전자반도체총괄부사장)동문은 삼성전자에 근무해오면서 84년 256KD램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으며 부상으로 모교 辛永常교수의 동양화 한 폭씩을 받았다.

동문업
정금당

예물전문점

정금당

광명시 하안동 삼호빌딩 1F (전화 892-8788)



거관리위원회등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오다가 5년전 도시계획 개발지인 광명시로 옮기면서 정금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예비부부에게 인기 있는 예물은 역시 7월의 탄생석인 루비를 들 수 있다. 붉은 색의 루비는 그 색깔만큼 정열적인 사랑을 뜻하는데 18K의 귀걸이, 목걸이, 반지를 1세트로 구입할 경우 60만원~1백만원 정도 예상하면 된다.

이외에도 1세트의 가격이 비슷한 녹색의 에메랄드, 40만원~60만원 정도인 푸른색의 사파이어, 찬란한 광채를 내는 다이아몬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6월의 탄생석 진주는 눈물같다 해서 예물보다는 선물로 인기가 있는데 우아한 분위기로 중년 부인들을 사로잡는다.

요즘은 순결한 이미지때문에 젊은 세대도 많이 찾는다는데 생명이 있는 조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흔히 「살아있는 보석」으로 불린다.

『좋은 보석을 고르는 요령을 굳이 들자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너무 질거나 흐린 색을 가진 보석은 품질이 떨어집니다. 중간이 제일 좋은 것으로 이런 보석이 광채도 더 영롱하지요. 오팔같은 보석은 수석이라 너무 건조하게 보관하면 트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물에 담가줘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착용하고 난 후에는 부드러운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보관하세요』 차동문의 귀뜸이다.

「정금당」은 하안동 주택은행에서 삼호빌딩을 찾으면 되고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는 개봉이나 가리봉동역에서 버스를 타면 된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이며 매달 둘째, 넷째 화요일은 휴무이다.

(志)

세련된 디자인이 일품

「정금당」은 朴起範(68년 經大院卒) 동문이 「신용을 생명처럼 알고」 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결혼예물 전문점이다. 이 곳은 갖가지 보석과 금, 은 세공품, 시계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세공전문 직영공장이 있어 세련된 디자인이 일품이다. 「신용과 품질」은 이 곳의 자랑이며 단골손님이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이다.

朴동문은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은퇴 후, 지금까지 한국문헌연구소, 선

한인간행

단전호흡으로 전신운동

金世駿(50년 文理大卒)前제일스포츠센터사장



으로 상하운동을 최소한 50회 이상 하고 다음에는 요 위에 붙이고 약 50회를 교대로 하면 혈류의 흐름을 직감하게 되며

5. 한쪽 발모서리로 다른 발바닥 중심부를 약 50회 부딪치고 그 반대로도 50회를 하며

6. 발가락을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과 새끼발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을 각각

저는 1923년 11월28일생이니 연말경에는 만73세가 됩니다. 90년 10월30일 제일컨트리클럽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서울대병원에서 주치의 金丁龍교수의 집도하에 간장수술을 받았습니다. 간장의 암부위를 절제하고 담낭과 비장을 도려내는 7시간의 수술을 했습니다. 약 2개월간 입원했으며 12월 하순에 체중 53kg의 상태로 퇴원했습니다.

입원중에도 매일 운동을 조금씩 했었지만 집에서 다음과 같은 운동을 매일했습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무척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지면을 통해 운동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꾸준한 노력·인내심 필요

1. 우선 요에 누워 양발을 좌우로 흔들면서 발모서리가 서로 부딪치도록 하는 운동을 최소한 2백회 이상함으로써 위장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2. 누운 채로 단전호흡을 최소한 50회 이상 하고
3. 복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최소한 1백회 이상 시계방향으로 문지르고
4. 양발꿈치를 약간 들어 머리 방향

50회 하고

7. 베개를 베지않고 양팔을 뒤로 길게 뻗는 동작도 약 20회 이상하게 되면 척추가 반듯하게 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며

8. 누운 채로 양발을 구부리고 다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머리는 다리운동과 반대로 약 50회 이상 흔들면 장과 목운동에 도움이 되며

9. 두 손으로 무릎을 껴안고 약 50회 이상 상하운동을 하게 되면 뱃속이 편하게 되며

10. 복부부위를 요에 붙이고 두 팔로 엮으려 뻗치기를 약 20회 하면서 머리는 될 수 있는대로 뒤로 하며

11. 요 위에 양다리를 곧게 바로 펴고 두 팔을 발의 중심부까지 뻗는 동작을 하고 양다리를 좌우로 벌리면서 상체가 요바닥에 닿도록 하며

12. 가로 45cm, 세로 4cm의 나무로 등받침을 만들어서 허리아래부터 심장, 폐부위까지 차례로 등뒤로 받쳐 가며 호흡을 하고 또 그 반대로 윗부위에서 허리아래부위까지 운동을 하면 속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운동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하는 동창회 ● 노력하는 동창회 ● 영광스런 동창회

- 21면 뜨락
- 22면 모임탐방
- 23면 문화단신
- 화제의 동문
- 24면 年會費납부자
- 27면 국민카드가입자

제 208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7월 1일 월 간

[21]

6월 회보를 읽고

문화면에 가중치를...



서울대동창회보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활자도 더 커진 것 같고 레이아웃이나 컷 디자인등도 많이 좋아져서 시원해진 느낌이 든다. 읽는 회보에서 보는 회보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 두가지 점은 개선됐으면 한다.

첫째는 지면중에서 문화면을 좀더 많이 배정했으면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회보가 일부 단과대학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흥미를 갖고 공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채롭게 실는다면 동창회보가 지금보다 더 아낌을 받는 회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金載姬(60년 美大卒)화가

학부중심에서 벗어나길



동창회와 회보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동안 느꼈던 점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원 출신의

동문들이 좀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회보를 보면 전반적으로 학부중심으로만 꾸며져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대학원, 신문대학원, 행정대학원등 모교 대학원을 나온 동문들에 대해서도 필자 선정을 비롯, 대학원별 동창회 소모임이나 모교 대학원의 근황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덧붙이자면 동문을 소개할 때 특히 동정의 경우, 가능하면 최근 사진과 함께 기사를 실어 주었으면 한다.

林周煥(76년 行大院卒)

순천향대학교수

동창회보는 동문여러분의 소식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동문의 소리」란을 신설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동문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서울대동창회 편집부
전화 : 702-2233
FAX : 703-0755



일하는 손이 아름답다

여름은 이룰때면 생의 우선순춤 표지판이다. 봄내 계절병에 정신팔려 다니느라 다소 탄력이 빠진 내 삶의 문맥 곳곳에 상큼하게 구두점 몇 개를 찍으면서 시작된 나의 7월이다. 강통 따는 소리로 주위가 시끌벅적 하는가 싶더니만 그새 웬 물소리? 썩아 침병, 아침부터 부쩍 갈증을 돌운다.

지식보다는 지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나』고 뜬금없이 묻는 딸아이의 질문에 내가 들려 주는 대답은 한가지 뿐이다. 『꼭 유명해져야만 잘 산 삶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름이란 줄기차게 욕망쪽을 따라 때에 얻어지는 것인만큼 지나치면 추해 보일 우려도 있는 법, 그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공들여 매만지고 고쳐서 새로운 어떤 그릇으로 잘 쓰기만 한다면 그게 몇배 값지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평소 넓고 큰 마음을 가꾸도록 애쓰는 사람이라야 뒷날 큰 일감이 된다』

무엇인가 늘 쫓기는 기분이어서 그렇지않아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는 신세대(?) 자식에게서 내 말이 공감을 얻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걸 아는 자신이면서도 그 또래 젊은이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의 「연장론」을 어저져고 은근슬쩍 주입하려 드는지 모르겠다. 정답이 없는 오늘을 살면서 그들만이 유일하게 지켜져야 할 보루라고 믿는 까닭에,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애정과 관심이 무척 뜨겁고 크기 때문이란걸 언제쯤이면 그들이 알게 될까?

「시대와 사람의 쓰임 데를 찾아 마땅히 등불을 켜는 손보다 따뜻한 사람이 또 있을까」 사람의 뒤편이 지식 이 많고 적음으로 따질 수는 없다.

다이하드 정신이면 OK

다만 인생이라는 도장(道場)에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을 들라면 첫째가 지혜라고 생각한다. 지식이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순 없어도 지혜는



李承弼(56년 師大卒)시인

사람으로 하여금 거울처럼 맑은 영혼을 지니게 한다.

지혜서에는 「지혜란 사람을 사랑하는 영」이라고 쓰여있다. 하나뿐인 요술사과를 이웃나라 공주의 병을 고치는데 달랑 내주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마침내 부마가 된 옛이야기 속 한 젊은이의 지혜를 우리도 구해야겠다. 목적인 것을 위해서는 전부를 걸겠다는 생의 다이하드정신 하나면 못할 것이 없다. 혼자 뒷전에 던져진 사람을 세상과 화해시켜 주는 일은 시급하다.

한시간 늦게 자고 한시간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을 익혀야 시간 부자가 된다. 미소한 사람들의 방을 비추는 햇살처럼, 가만가만 뭔가를 위해 일하는 손은 믿을만해서 아름다우며 의외로 큰 힘을 낸다는 새로운 진리 하나를 기억하자.

여성 특권만 요구 못해

지난 60년동안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20세기 초반까지 일어난 변화를 훨씬 능가하는 진전이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대략 세단계로 구분된다.

꿈도 못꾸던 역할 담당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내지는 기능 확대의 초기단계에서는 여성도 사람이니 인간처럼 대우를 받을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성은 부드럽다든가 신중하다든가 섬세하다는 등의 소위 여성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여성도 사회에 기여할 나름대로의 기능 내지는 분야가 있다는 논리에 입각한 여성기능의 확대요구 내지는 여성에 대한 기회부여 제도의 마련이었다. 오늘에 와서는 여성도 인간이라든가 혹은 여성도 사회에 쓸모가 있다는 등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사회의 엄청난 50%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를 만들고 지키며 또한 이 사회에서의 모든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여성의 지위가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도로서 실현되고 있는 과정에 와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의 머리속에 어떤 형태로든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 모든 제도의 구석구석에 의식, 무의식 중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사회 조직의 요소요소에서 과거 같았으면 꿈도 껴보지 못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회를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기회 제대로 활용 했나?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두가지 점을 우리 자신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로, 우리가 이 사회에 기대하거나 주장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에 관하여 과연 우리들은 얼마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金惠琬(73년 藥大卒)특허청

약품화학심사담당관

다음으로 우리 여성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만큼 활용했으며 그 책임을 얼마만큼 수행했는지?

우리가 주장을 하든 안하든, 원하는 원치않든 간에, 세계화의 거센 물결은 한국여성들에게도 선진국 여성들과 비견되는 기능을 부여하고 책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여성의 특색을 들어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거나 면책을 기대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의미있는 사회기여, 또한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서 뚜렷한 자부심과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에 필요한 지능과 인격을 부지런히 쌓아야 한다는 자랑스럽지만 무거운 책무를 두 어깨에 짊어지게 된 것이다.



법대 19회

회장부인이 총무 역할 수행 동문 경조사 점조직으로 순식간에 알려

『농담으로 말하죠. 시험안치고 법대 들어가려니까 힘들다구요. 처음에는 남편 친구분들이라 무척 어려웠어요. 이제는 저보고 법대19회 총무라고 그러니까 법대19회 동기회의 살림을 맡고 있는 崔基泳(정선파킹시스템스사장)회장의 부인 金喬辛씨의 말이다.

부부모임에 중점 뒤

同會는 다른 동기회와 많이 다르다. 우선 사업일로 바쁜 崔회장을 대신해 부인인 金喬辛씨가 온갖 살림을 도맡아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회사에서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그녀는 국내외 사회활동을 해온 경험이 많은 도움 이 됐다고 한다.

『법대가 특히 보수적이거든요. 부부모임을 많이 갖도록 유도하니까 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덕분에 인기가 많이 올랐다고 동문들로부터 종종 전화가 옵니다』 그녀는 이제 정규 회원보다 더한 신임을 받고 있는 눈치다.

또다른 특징은 전국과 해외에 걸친 연락망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동문신변에 일이 생겼다는 연락이 오면 각 직장별로 선임된 이사들에게 팩시밀리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차례차례 모든 회원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된다. 이렇게



졸업30주년 기념식.(좌로부터 白忠鉉학장, 李時潤감사원장, 崔基泳회장, 襄載湜 명예교수, 金哲洙본보논설위원)

완벽한 연락망을 구축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공이 들었지만 회원들의 경조사는 확실히 챙길 수 있게 됐고 동창회의 일도 훨씬 수월해졌다.

졸업30주년 행사 대성황

同會는 안전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를 갖는다. 지난 10일 교수회관에서 열린 졸업30주년 행사도 장소는 물론 메

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同會는 모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중이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각 기업체, 연구기관등에서 정상의 위치에 올라있는 회원들은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끊임 없이 연락을 취하고 매력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야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때문에 同

會는 정기총회, 신년하례회 이외에도 동문이 재직하고 있는 공장을 견학하는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마련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매년 동문 자녀가 법대에 입학할 경우 1년간 학비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同會는 항상 주목받는 회원보다는 그렇지 않은 회원, 서울보다는 지방에 거주하는 회원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전임회장을 포함한 이사에 전 회원을 두루 선임하는 것도 이러한 배려에서이다. 매달 열리는 골프회와 등산모임, 강남, 강북모임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인지 이번 졸업30주년 기념행사에는 2백85명의 회원중 1백7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연락이 닿는 회원은 거의 다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노후대비 프로그램 마련

同會는 인생의 절정을 맞아 가장 바쁜 시기에 놓인 동문들에게 해외여행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미루고 있고 지속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동창회기금은 모교 후원금으로 값있게 쓸 참이다. 또한 회원들이 나이들었을 때를 대비한 노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同會의 또다른 점이다.

同會의 임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회장: 崔基泳 ▲부회장: 尹羽正, 盧京來, 南進 ▲이사: 郭東憲, 金吉大, 金洋一, 金毅中, 權光重, 鄭正佑, 金鍾泰, 金孝成, 明浩根, 朴文榮, 朴孝星, 禹勝勇, 元佑鉉, 李千洙, 李鎬君, 全昌烈, 鄭奇桓, 鄭鎮龍, 朱光逸, 金泳三

(志)

독문과 여성동문회

동창회라기보다 친목회 국방대학원 민간여성1호 배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 현대적 감각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나라 독일.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함께 고민하고 성장했던 여대생들이 이제는 어엿한 사회의 중견이 되어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80년대 초, 많은 남자동기들 사이에 끼었던 한두명의 여자동기들이 선후배를 따지며 모여 들다보니 50여명. 4·19, 5·16을 몸으로 느낀 선배들과 책으로만 배운 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새생활캠페인을 쫓아다니던 커트머리 후배가, 「그 시절에도 아기가 태어났다」 싶을 정도로 까마득한 후배가 독문과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각뚫한 「선배대접」받아

『대학로에서 개천냄새를 맡아본 동문들입니다. 「동창회」라는 커다란 이름 대신 함께 경·조사를 치르며 힘이 되주는, 그런 친목모임을 갖자고 모인 것이 벌써 십년이 넘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도 거추장스럽다는 金福柱(64년卒)동문의 말이다. 서로의 근황을 묻기도 하고 각뚫한 「선배대접」을 받을 수 있어 좋다는데, 그래서



좌로부터 두번째 金福柱회장.

후배보다는 선배님들의 참석률이 높다고 한다.

선배들 참석률 더 높아

이 모임의 동문들은 대부분 교편을 잡고 있다. 그 중 최고참인 韓宇權(55년卒)동문은 성신여대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崔貞玉(76년卒)동문은 성심여

대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여성학 강사를 맡고 있는 朴惠蘭(69년卒)동문은 전업주부 생활 10년만에 다시 찾은 길인만큼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직접 체험한 후 시작한 공부라 더욱 열심일 수 밖에 없다는데 교육운동 단체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공동대표, 여성신문 편집위원, YMCA연합회 대학정책연구 특

위위원등의 다양한 직책이 朴동문의 노력의 흔적이다.

또 한사람, 「우리민족하운동」 회장을 맡고 있는 李正子(63년卒)동문은 졸업 후, 한국일보의 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주간시민」 「크리스찬 아카데미」등의 단체에서 여성운동뿐 아니라 환경, 소비자, 통일문제등을 다루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로 4년전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 여성운동사에 있어 「좋은 운동선례」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올해 초, 40년만에 민간인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국방대학원에 입교한 李동문은 「여성 지도층 안보의식에 관한 실태연구」로 논문을 작성, 졸업후엔 여성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친구로 불리는 게 더 좋아

동문이라는 이름보다 친구들이라는 이름이 더 좋다는 독문과여성동문회는 큰 일보다는 작은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임으로 남을 것이다.

(泳)

바로잡습니다

지난호(제207호) 23면 공연기사 중 金周妍바이올린독주회를 金姪衍 바이올린독주회, 88년 音大卒을 93년 音大卒으로 바로잡습니다.

문화
단신

新刊

음악은 향기롭고 사랑은 음악처럼

—曹祥鉉 著



성악가이며 20세기 음악문화인인 曹祥鉉 (51년 音大卒) 동문이 광복 50년, 음악 50년을 되돌아보고 체험을 통해 느꼈던 일들을 기록, 11번째의 저서를 펴냈다.

曹동문은 오는 10월에 「사랑의 노래」만을 엮어 제20회 독창회를 가질 예정이다. (음악춘추사刊·값6천원)

고통받는 인간

—孫鳳鎬 著



모교 사회교육과 교수인 孫鳳鎬 (61년 文理大卒) 동문이 철학서를 펴냈다. 孫동문은 이 책속에 「고통」을 중심 개념으로 인간 실존과 철학·역사·윤리·문화를 재해석한 철학적 성찰을 담았다. (서울대출판부刊·값8천원)

깨끗한 기쁨

—李承弼 著



「불신의 서정」, 「집에 가고 싶어라」, 「흔들며 흔들리며」 등의 시집으로 잘 알려진 李承弼 (56년 師大卒) 동문이 65편의 시를 모아 문

학아카데미 시선을 통해 선보였다.

李동문은 머리말에서 「시는 바깥일을 잊을수록 시인이 숨어 있기에 가장 좋은 다락방이다. 굳이 아무도 찾아내려 성가시게 굴지않는 섬」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아카데미刊·값3,500원)

생물의 죽살이

—權伍吉 著



저자 權伍吉 (63년 師大卒) 동문이 생물의 삶과 죽음을 가까이서 들여다 본 느낌을 수필식으로 풀어 쓴 책. 「죽살이」는 죽음과 삶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權동문은 이 책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생물의 살아가는 모습을 알기 쉽도록 엮어 독자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생물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지성사刊·값6,500원)

이동통신용어사전

—이동통신용어사전 편집위원회 編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용어의 개념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동통신용어사전 편집위원회(위원장 李在弘모교공대교수)가 1년여의 기획, 집필, 편집과정을 거쳐 발간한 국내 최초의 용어사전.

국내 이동통신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대다수 전문가가 힘을 모은 이 사전의 편찬비용은 한국이동통신에서 지원한 「이동통신 기술용어 표준화 연구」 과제에 의존했다. (서울대학교출판부刊·값12,000원)

公演

姜恩秀작곡발표회

—7월2일 호암아트홀

국내 중견 작곡가 姜恩秀(83년 音大卒)동문의 2번째 작곡발표회.

짜임새있는 구성력과 다양한 악기구성으로 다채롭게 꾸며지게 될 이날 공연은 姜동문의 진솔한 작품세계와 정서가 그대로 녹아있는 보기도문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

대화가 있는 음악회

—피아니스트 李芳淑동문

쇼팽홀서 공연

중견피아니스트 李芳淑(65년 音大卒·연세대교수)동문이 지난 22일 쇼팽의 집 쇼팽홀에서 「대화가 있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李동문은 이날 음악회에서 브람스의 「피아노소품」과 쇼팽의 「발라드」등 가볍고 친근한 곡을 선사했으며 이 곡들을 통해 음악은 자연스럽게 솔직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연세대 음대학장을 역임한 李동문은 美미네소타주립대학교원, 뉴잉글랜드 콘서트바토리를 졸업했다.



쇼팽의 집이 89년말부터 기획한 「대화가 있는 음악회」는 중견연주인들이 1백석 규모의 작은 극장에서 음악 애호가들과 스스럼없이 만나는 자리이다.

(정리=安興燮기자)

화제의 동문

金震均

공대 건축학과 교수



지난 1월 신캠퍼스의 마스터플랜을 국제공모한 결과, 해외에서 2개 작품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설계전문가들이

중·고교시절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金동문은 모교 건축학과를 졸업, 美 MIT 석사학위,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를 받은 후 81년 모교에 부임하여 설계분야의 강의를 해왔다.

金동문은 평소 대학캠퍼스에서 느꼈던 아쉬움들을 적용, 통일되고 조화있는 시각

단국대 신캠퍼스 마스터플랜 당선

“캠퍼스의 시각적 질서 잡고 싶어”

15개의 작품을 응모했으며 1차 기술심사와 2차 최종심사 등 엄정하고 공개적인 토의와 심의끝에 金동문의 작품이 당선된 것이다.

金동문의 작품은 외형적 미관은 물론 교사 상호간의 연결이 기능적이면서 동선이 경제적이란 점과 향후 2차, 3차에 걸친 캠퍼스 확충에 따른 공간수요에 대비한 잠재력이 크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적 질서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응모동기를 밝혔다.

1주일 20시간의 땀뻑한 강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많은 설계작품활동을 하고 싶다는 金동문은 그동안 모교 관악캠퍼스 마스터플랜 계획에 관여한 바 있으며 모교 연구공원, 장충동 덕양빌딩, 한전 전담지사 건물, 부산 한덕생명 본사빌딩의 설계를 맡은 바 있다.

(燮)

“동문여러분 年會費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理事: 4월 19일 ~ 5월 2일 · 一般: 4월 18일 ~ 5월 2일〉

회 장 단

- ▲부회장 朴晟容=1백만원
- ▲부회장 李垞鎔=1백만원
- ▲부회장 姜晉求=1백만원
- ▲부회장 尹世榮=1백만원
- ▲부회장 趙南煜=1백만원
- ▲부회장 宋斗瀾=50만원
- ▲부회장 姜昌淳=50만원

상 임 이 사

- ▲李仁子 가정대학동창회장=20만원
- ▲楊銀淑 간호대학동창회장=20만원
- ▲張禮準 상과대학동창회장=20만원
- ▲李禮植 약학대학동창회장=20만원
- ▲魏駿琳 교육대학원동창회장=20만원
- ▲李濟燕 신문대학원동창회장=20만원

이 사

◇社會科學大學

- ▲김정구 76 대한투자신탁차장
- ▲박찬욱 76 서울대학교수

◇家政大學

- ▲신화용 76 덕성여대학교수

◇看護大學

- ▲강숙녀 59 고려병원간호부장

◇工科大學

- ▲박덕상 60 선진ENG부회장
- ▲김봉완 49 B·W 무역사장
- ▲원용선 49 삼화기업회장
- ▲권봉수 66 LG실트론상무

동문여러분의 신속한 연회비 납부는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본회는 그동안 동문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후배들의 장학금 을 비롯해 교수연구비, 모교의 각종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권순영 56 한국종합화학사장
- ▲김석주 54 前건우통상사장
- ▲김연수 58 한국투자증권고문
- ▲김원배 59 동아ENG상무
- ▲김재근 71 한국전력기술처장
- ▲김주호 58 前한국전력공사
- ▲김철구 69 효성ASC사장
- ▲김철기 61 삼주건영이사
- ▲김관수 57 삼양화성사장
- ▲김형도 63 석탄공사본부장
- ▲김홍식 61 한일건설상무
- ▲목영일 60 아주대학교수
- ▲문봉희 68 용해건설전무
- ▲문성득 55 부산공업대학교수
- ▲박순자 64 서울대학교수
- ▲박용규 62 국동건설부사장
- ▲박용승 68 수공종합감리공단
- ▲박용준 64 창원기능대학교수
- ▲박용진 55 홍익대학교수
- ▲배윤재 67 원흥종합건설회장
- ▲백종기 68 태광특수기계사장
- ▲서정훈 55 동명공사사장
- ▲성기상 66 협성농산사장
- ▲성낙상 51 前동아건설고문
- ▲송병완 73 제너럴ENG사장
- ▲송종석 55 연세대학교수
- ▲신금진 56 한국전력기술고문
- ▲신훈철 51 성우회관회장
- ▲심이택 63 대한항공부사장
- ▲심재학 68 동서산업사장

- ▲양문현 55 해양섬유사장
- ▲유성목 70 (주)세창사장
- ▲유현식 63 제일모직사장
- ▲윤봉태 70 호남정유상무
- ▲윤장섭 60 서울대학교수
- ▲이계완 60 한양대학교수
- ▲이광우 64 롯데햄·우유상무
- ▲이광재 68 前한국원자력研
- ▲이동인 69 영남대학교수
- ▲이만철 60 중소기업은행부장
- ▲이민창 58 천일기술단회장
- ▲이상렬 69 (주)대농사장
- ▲이상훈 54 신한투자금융
- ▲이상현 74 우영산업사장
- ▲이승우 54 건축설계사무소
- ▲이원홍 61 서강대학교수
- ▲이정균 55 (주)고도회장
- ▲이정형 68 동양나일론전무
- ▲이종근 59 한라중공업고문
- ▲이충웅 58 서울대학교수
- ▲이행부 65 포스코홀스사장
- ▲이흥중 71 화성산업사장
- ▲인주선 63 호남해운사장
- ▲장기옥 58 한국전력기술사장
- ▲전대원 57 우일건축사무소장
- ▲정옥희 59 부곡온천호수장
- ▲정우모 60 태영그룹부회장
- ▲정조섭 60 중앙대학교수
- ▲정호균 73 삼성전자상무
- ▲조병우 64 유봉실업사장

- ▲조정희 59 동원ENG사장
- ▲조형제 55 한화미상사사장
- ▲최민호 64 홍익대학교수
- ▲최정욱 55 오봉인터내셔널
- ▲한방교 55 부천전문대학장
- ▲함명호 62 건풍상사사장
- ▲허영우 52 한양대학교수

◇農科大學

- ▲박준직 71 방송통신대학교수
- ▲김영준 38 가락중앙중교회장
- ▲민관식 40 아세아정책연구원장
- ▲권대옥 73 한보그룹사장
- ▲권오진 55 서해개발사장
- ▲김무진 64 중앙케미칼사장
- ▲이달형 57 동진개발부사장
- ▲조장환 60 단국대학교수
- ▲최상호 69 농협전문대학교수
- ▲최현국 53 한국기술개발사장
- ▲홍순홍 64 영진헬스관장

◇文理科大學

- ▲강경식 66 고속버스터미널
- ▲구연규 59 前대동공업이사
- ▲구춘옥 64 한국협화화학전무
- ▲김 건 52 한국은행통화위원
- ▲김복문 51 충북대학교수
- ▲김상호 62 형제유통유사장
- ▲김의경 60 국제극예술협회장
- ▲김인호 48 한솔제지상담역

- ▲김홍식 67 前국립공원공단
- ▲남시욱 68 동아일보상무
- ▲변용찬 59 대명공업사장
- ▲손대연 59 前한국기술금융
- ▲송철원 55 대한교과서고문
- ▲오세한 70 농협춘천연수원장
- ▲오완영 55 오승개발사장
- ▲이경식 59 前공보처차관
- ▲이만렬 63 숙명여대학교수
- ▲이선배 55 서울북프로모션
- ▲이정실 56 한양대학교수
- ▲임석진 66 명지대학교수
- ▲장득성 68 장&ASSO.회장
- ▲장준성 59 서울대학교수
- ▲정운학 58 前북한문제研소장
- ▲정춘택 58 쌍용경제研고문
- ▲조영길 62 前한국관광공사
- ▲천양철 69 연합통신사회부장
- ▲황선필 64 前문화방송사장

◇美術大學

- ▲장화진 73 이화여대학교수

◇法科大學

- ▲이우철 71 재경원인력기술과
- ▲김택정 78 변호사
- ▲김현순 58 민주평통자문회의
- ▲간영석 61 지역난방공사이사
- ▲강문성 56 대학출판사장
- ▲강영훈 69 해군사관학교교수
- ▲강태중 56 위너스버거사장
- ▲김 유 55 한미리스부사장
- ▲김경철 62 중앙일보광고본부
- ▲김상옥 70 MBC비서실장
- ▲김상운 68 변호사
- ▲김상희 73 서울지검동부지청
- ▲김세재 67 동일강업사장
- ▲김실동 64 삼미기공사장
- ▲김양일 55 변호사
- ▲김영삼 55 변호사
- ▲김영재 62 변호사
- ▲김완식 75 변호사

▲김운조⑥前대구제일극장
▲김정렬⑥능률협회부회장
▲김정후⑥강원대학교수
▲김주진⑥아남산업회장
▲김진영⑦부산고법판사
▲김찬규⑥경희대학교수
▲김창균⑥변호사
▲김창근⑥서울시립강남병원
▲김형기⑥변호사
▲나정욱⑥변호사
▲남상운⑥오경물산사장
▲노명준⑥한국외국어대학교수
▲문동후⑦총무처조직국장
▲민수광⑥현대건설이사
▲민좌기⑥한일증권상무
▲박 준⑦변호사
▲박상기⑥변호사
▲박석규⑥한양유류이사
▲박원택⑥안동대학교수
▲박윤환⑥前환경처장관
▲박일홍⑦변호사
▲박준호⑦장기신용은행
▲백영열⑦전주지법부장판사
▲서삼영⑥한일은행수유지점
▲서형석⑥대우무역부문의장
▲성주형⑥송의여전교수
▲손영섭⑦변호사
▲송영수⑥한진중공업사장
▲송인기⑥공인중개사
▲신규태⑥현대정유감사
▲신영무⑦변호사
▲신오철⑥민자당도봉갑지구
▲신현덕⑥경희대학교수
▲신호양⑥변호사
▲심한준⑥변호사
▲안상수⑥변호사
▲안준용⑥한양대학교수
▲양동관⑦서울지법서부지원
▲양희영⑥세양운수사장
▲오윤덕⑥변호사
▲오종권⑥변호사
▲윤성태⑥의료보험연합회장
▲윤성영⑥변호사
▲윤용석⑦변호사
▲윤재득⑦강화덕정은천시장
▲이 서⑥외환은행봉천지점
▲이광표⑦변호사
▲이규호⑦변호사
▲이선우⑥대여객사장
▲이순배⑥청우무역이사장
▲이일영⑥변호사
▲이재기⑦변호사
▲이정락⑥변호사
▲이진세⑥현대중공업부사장
▲임도빈⑦도창산업사장
▲장동완⑥변호사
▲장준호⑦변호사
▲장지환⑥쌍용건설사장
▲전수일⑥광운대학교수
▲정기승⑦변호사
▲정명택⑥변호사
▲정세용⑦변호사
▲정시성⑥통일원사무국장
▲정영호⑥변호사
▲정재석⑥前부총리
▲조동평⑥한국전력공사처장
▲조용국⑥사조산업영업본부
▲조주순⑥타이가상사전무
▲주영훈⑥제일은행남산지점
▲주진학⑥변호사
▲진의장⑥前시흥세무서장
▲최승희⑥태인산업사장
▲최의칙⑥前한일리스상무
▲최인기⑥농림수산부장관
▲한경국⑥변호사

▲현병무⑥배성물산회장
▲현희남⑥동아생명보험전무
▲홍재현⑥현대통신부사장
▲황규정⑥변호사
▲황보경석⑥前동진사업사장
▲황진호⑥변호사

◇師範大學

▲곽후섭⑥상호신용연합회장
▲김대년⑦서원대학교수
▲김대식⑥충북대학교수
▲김상욱⑥청주교대교수
▲김은주⑥가락중학교장
▲김충언⑥서울시교육청
▲김학래⑥무등장학회이사
▲문창완⑥창성기업이사장
▲민경현⑥풍문여고교장
▲민재익⑥前고려대기획처장
▲박익두⑥국민대학교수
▲박희숙⑥한국교원대학교수
▲배구섭⑥그린테니스클럽
▲손진석⑥오아시스레코드
▲양금석⑥한국교회목사
▲오경환⑦경상대학교수
▲오연정⑥수원대학교수
▲유왕열⑥목포대학교수
▲윤봉련⑥홍지유치원장
▲윤석임⑥꽃나래시장
▲이용훈⑥前동일국교교장
▲이종선⑥국민대학교수
▲이해성⑥이화여대학교수
▲장상곤⑥동아청소년교육원
▲전중철⑥전청훈인쇄회장
▲정중호⑥유진개발부사장
▲조 훈⑥전주교육청장
▲주일영⑥중앙대학교수
▲황명락⑥성지학원원장

◇商科大學

▲강시봉⑥우성제지시장
▲강영철⑥前삼천리기계사장
▲고광범⑥(주)아상시장
▲권보상⑥동양창업투자시장
▲권태웅⑥LG하나텔사장
▲김 광⑥호유에너지부시장
▲김규석⑥前신택은행상무
▲김만경⑥한전석유공업사장
▲김시렬⑥외환리스부시장
▲김연배⑥제일증권상무
▲김영근⑥조흥銀도화지점장
▲김영수⑥만호제강사장
▲김영태⑥국민銀무교지점장
▲김중현⑥서해안연구소회장
▲김중기⑥성원피혁공업사장
▲김창일⑥안국상호신용금고
▲김천옥⑥국제이화공업시장
▲김충환⑥한국전자전무
▲노재승⑥변호사
▲문태갑⑥前체육진흥공단
▲민병윤⑥종합기술개발공사
▲민창기⑥장은창업투자시장
▲박만옥⑥조흥투자자문시장
▲박문달⑥LG유통전무
▲박세만⑥前세양공업시장
▲박종태⑥비씨카드전무
▲박현두⑥대동기어시장
▲배신한⑥D.Y.R.코리아시장
▲배홍규⑥공인회계사
▲서원호⑥농협중앙회지회장
▲손기혁⑥동우섬유시장
▲신희철⑥금강제화부회장
▲안인수⑥삼풍특수소재회장
▲오한구⑥前국회의원
▲유명희⑥한일신용금고시장
▲유충식⑥동아제약시장

▲윤호중⑥한미통상부회장
▲이 연⑥삼성석유화학고문
▲이계욱⑥호유에너지전무
▲이광표⑥영한상사시장
▲이구수⑥롯데알미늄이사
▲이내균⑥삼화도기시장
▲이상근⑥신용관리이사장
▲이상기⑥한무개발시장
▲이상선⑥(주)경방상임감사
▲이인구⑥남해상사시장
▲이정권⑥기업평가부시장
▲이태환⑥내외반도체부시장
▲이한옥⑥한국종합열기감사
▲이희순⑥세무사
▲장동훈⑥손해보험협회전무
▲전영수⑥주택경제연구소
▲정교관⑥다림원원장
▲정영로⑥제일銀영등포지점
▲조 원⑥한국신용평가시장
▲조동일⑥한국은행부장
▲조용구⑥한미은행상무
▲조중현⑥대전전기시장
▲주진표⑥천원수산시장
▲최광현⑥광성산업시장
▲최남식⑥현대강관전무
▲최동진⑦동양나일론이사
▲최진재⑥데이비스제약시장
▲한근환⑥신한투자금융시장

◇獸醫科大學

▲박현기⑦충남가축위생시험
▲한인식⑥(주)동방전무
▲계봉구⑥동원신약시장
▲김대경⑥김수의과의원
▲김홍욱⑥공안당한의원
▲이효춘⑥미락식품시장
▲조기형⑥한풍제약시장
▲조효익⑥강남중부가축병원
▲최영일⑥前기독교방송국
▲최찬영⑦신진동물병원장

◇藥學大學

▲박종훈⑦동국제약부회장
▲박홍재⑥양평약국
▲강석진⑥동덕약국
▲김수경⑥동진약국
▲김영택⑥한국복지약국
▲김태욱⑦호남약국
▲문경운⑥경일약국
▲박종남⑦아산사회복지재단
▲오원식⑥태평양화학부시장
▲유충규⑦이화여대학교수
▲윤광철⑥윤약국
▲이규호⑥해동약국
▲이만재⑥민원약국
▲이창기⑥대륙ENG부회장

◇音樂大學

▲이경숙⑥서울대학교수
▲김봉임⑥경희대학교수
▲김해경⑥서울대학교수
▲서경선⑥한양대학교수
▲유명영⑥前서울교대교수
▲안형일⑥서울대학교수

◇醫科大學

▲이대규⑥민경실업시장
▲김주일⑥금촌의원원장
▲이창환⑥성암의원원장
▲강순룡⑥민생의원원장
▲고광옥⑥한양대학교수
▲김경태⑦한양대학교수
▲김연기⑥소아과의원원장
▲김영덕⑦산부인과의원원장
▲김인원⑦서울대학교수

▲김재영⑥순천의원원장
▲김철수⑦동두천정형외과
▲김한섭⑥중앙의원원장
▲김형목⑥고려대학교수
▲김형전⑥대한안과학회장
▲노 영⑦성형외과의원원장
▲문희철⑦서울중앙병원
▲민병철⑦서울중앙병원
▲박성구⑥자선산부인과의원
▲박순태⑦경상의대일반의과
▲박영희⑥부산내과의원원장
▲박대동⑦산부인과의원원장
▲배대경⑦경희대학교수
▲서정기⑦서울대학교수
▲손광현⑥서울중앙병원
▲신면우⑥암연구소장
▲신순철⑥제일병원산부인과
▲신영배⑥명천의원원장
▲신용찬⑥시민병원원장
▲신현우⑦동아병원마취과
▲심영보⑥심영보의원
▲안재환⑦안병훈정형외과
▲양기민⑥중앙대용산병원
▲염광원⑥서울치대구강의과
▲원장섭⑦동래병원원장
▲유명철⑦경희의료원
▲유병훈⑦소아과의원원장
▲유숙자⑥카톨릭의대교수
▲이갑순⑥삼덕정형외과의원장
▲이규환⑥안양신경정신병원
▲이성우⑥동국대학교수
▲이수동⑦소아과의원원장
▲이순형⑥서울대학교수
▲이종현⑥원산부인과의원장
▲장성근⑦장정형외과의원장
▲전동원⑥전소아과의원원장
▲전하용⑥前삼육재활병원
▲정민영⑦대한병원정형외과
▲진용한⑦서울중앙병원안과
▲최동열⑥서울신경외과의원장
▲최병휘⑦중앙대용산병원
▲최세준⑥최소아과의원원장
▲홍성태⑦서울대학교수

◇齒科大學

▲강태욱⑦강태욱치과병원
▲권오양⑥권오양치과의원
▲김기호⑥김기호치과의원
▲김명원⑥김명원치과의원
▲김봉환⑥김봉환치과의원
▲김상세⑥김상세치과의원
▲김세진⑦김세진치과의원
▲김정기⑥대동치과의원
▲김종렬⑦부산대학교수
▲김종우⑦예치과의원
▲김지호⑥예일치과의원
▲김치영⑥김치영치과의원
▲노수영⑦노수영치과의원
▲노철진⑥노철진치과의원
▲민성기⑥민치과의원
▲박경진⑥박경진치과의원
▲박기성⑥박치과의원
▲박행운⑥박치과의원
▲백승호⑥백승호치과의원
▲변석두⑦세브란스치과의원
▲변영남⑥성신치과의원
▲성훈경⑥성치과의원
▲송건일⑥송치과의원
▲송우화⑦송우화치과의원
▲신일규⑦신명치과의원
▲유근원⑦유근원치과의원
▲윤경호⑦윤경호치과의원
▲이광호⑥이광호치과의원
▲이대원⑥연희치과의원

▲이영식⑦이영식치과의원
▲이원용⑥원화치과의원
▲이종률⑥이종률치과의원
▲이진수⑥이진수치과의원
▲이태호⑦이태호치과의원
▲임용준⑦임용준치과의원
▲장계순⑦장치과의원
▲장문수⑦신애치과의원
▲장상현⑥장상현치과의원
▲전국봉⑥전국봉치과의원
▲전태수⑥전치과의원
▲정광현⑥중앙치과의원
▲정기근⑦정기근치과의원
▲정종선⑥정치과의원
▲정해원⑥정해원치과의원
▲조사현⑥조사현치과의원
▲조성환⑥신반포치과의원
▲지유택⑥지유택치과의원
▲최금자⑥경희치과의원
▲한성훈⑥한성훈치과의원
▲한응렬⑥한응렬치과의원
▲허 택⑦평화치과의원
▲허연욱⑥강성치과의원

◇大學院

▲김완태⑦성지의원원장
▲노충희⑥상계백병원
▲유홍희⑥한양대학교수

◇經營大學院

▲김정태⑥신사주유소회장
▲신길수⑥명지대학교수
▲한경호⑦신공덕새마을금고

◇教育大學院

▲김병두⑥강원도교육감
▲이범국⑦명지대학교수

◇保健大學院

▲김미배⑦삼육간호전문대
▲박순영⑥경희대학교수
▲박희서⑦박희서한의원
▲변종화⑥보건사회연구원
▲조동복⑦삼거실업시장

◇司法大學院

▲박병일⑥변호사
▲이종순⑥변호사

◇新聞大學院

▲강민창⑦前치안부장
▲안성균⑦현대기술경영원

◇行政大學院

▲김재호⑥건영통상고문
▲김진억⑥前국민리스부시장
▲김한곤⑦충남도지사
▲박홍규⑦충북증평출장소
▲유형식⑥오성수출회장
▲이현승⑥명지대학교수
▲최규학⑥국무총리행정실
▲황인성⑥국회의원

일 반

◇人文科學大學

▲강석봉⑥ ▲구경룡⑥
▲김경미⑦ ▲김대환⑥
▲김만중⑦ ▲김종하⑥
▲김한국⑥ ▲박영열⑦
▲백명재⑥ ▲백영서⑥
▲오대석⑥ ▲윤영필⑥
▲이동영⑦ ▲이배홍⑥
▲이상희⑥ ▲이선규⑥
▲이정승⑥ ▲임재주⑥

▲정해경⁶⁷ ▲최태영⁸⁰
▲추희엽⁶⁹ ▲피재걸⁸⁷

◇社會科學大學

▲전익승⁸⁷ ▲김강욱⁸⁸
▲김대권⁸⁹ ▲김연광⁸⁴
▲김영진⁸¹ ▲김재현⁸⁹
▲김준영⁸⁹ ▲김태환⁸⁷
▲김형기⁷⁶ ▲박 찬⁷⁹
▲방창식⁸⁷ ▲설대수⁸⁶
▲송상민⁸⁹ ▲신성환⁸⁵
▲안현실⁸⁵ ▲유철규⁸⁵
▲윤현중⁸⁸ ▲이계평⁸⁷
▲이성표⁸⁸ ▲이승훈⁸⁹
▲이재진⁸⁷ ▲전홍찬⁸³
▲정대영⁸⁵ ▲정동중⁸⁸
▲정택진⁸³ ▲지청산⁸⁷
▲최 훈⁸⁷ ▲최낙민⁸⁷
▲최우석⁸⁹ ▲최원식⁸⁷
▲한상중⁸⁵ ▲한성룡⁸⁸
▲홍기영⁸⁸ ▲홍성민⁸⁹
▲황정욱⁸⁹

◇自然科學大學

▲강성구⁸⁰ ▲김건우⁸⁹
▲김상균⁸⁸ ▲명백훈⁸⁶
▲박해정⁸⁵ ▲방나희⁸⁷
▲서민호⁸⁵ ▲송준화⁸⁸
▲신기순⁸⁹ ▲신영길⁸²
▲안규정⁸⁹ ▲안성준⁸⁸
▲유양욱⁸⁶ ▲윤석준⁸⁹
▲이도원⁷⁸ ▲이동일⁸⁸
▲이은주⁸⁶ ▲이한형⁸⁰
▲이호성⁸¹ ▲이홍재⁸¹
▲장창환⁸⁸ ▲정병곤⁸⁹
▲조경혜⁸³ ▲조원덕⁷⁹
▲조정희⁸⁶ ▲최성아⁸⁹
▲한창우⁷⁹ ▲허은기⁸⁸

◇家政大學

▲박영애⁷³ ▲박인순⁸⁹
▲서순옥⁸⁴ ▲성현경⁷⁶
▲송경파⁷⁴ ▲이정자⁸¹
▲정광옥⁷³ ▲정태숙⁸⁴
▲조경옥⁸⁵

◇看護大學

▲한경자⁶⁷

◇經營大學

▲구경철⁸⁵ ▲김연성⁸⁸
▲김일건⁸⁵ ▲김재훈⁸⁹
▲박세환⁸⁹ ▲배한성⁸⁸
▲서학수⁸⁸ ▲성태홍⁸⁷
▲신준철⁸⁶ ▲안화주⁸⁸
▲이상민⁸⁷ ▲이정원⁸⁵
▲이호창⁸⁵ ▲임종영⁸⁷
▲임창환⁸⁹ ▲전종배⁸⁶
▲정창수⁸⁹ ▲조영석⁸⁶
▲지호준⁸⁴ ▲최상길⁸⁹
▲허승호⁸⁶ ▲황수연⁷⁹

◇工科大學

▲이종덕⁴⁹ ▲최하식⁴⁹
▲간대영⁶⁵ ▲강경호⁶⁶
▲강세훈⁷⁵ ▲강승혁⁸⁹
▲강장신⁶⁴ ▲고광렬⁵⁵
▲고재우⁷⁶ ▲곽병만⁶⁷
▲곽산태⁷⁰ ▲구형모⁸³
▲권형철⁵⁶ ▲김 윤⁷⁶
▲김경락⁶¹ ▲김광남⁶⁵
▲김권식⁷⁰ ▲김대익⁶⁵

▲김동길⁶⁹ ▲김동훈⁵⁰
▲김병린⁵⁹ ▲김삼선⁶⁵
▲김성민⁷² ▲김성우⁶³
▲김성환⁷⁶ ▲김승래⁸⁹
▲김연호⁷⁵ ▲김영기⁶⁷
▲김영석⁸⁷ ▲김영식⁷⁹
▲김영오⁸⁹ ▲김원식⁸⁰
▲김응건⁸⁹ ▲김의석⁸⁸
▲김인규⁸⁹ ▲김재설⁶²
▲김재익⁷⁵ ▲김정덕⁷⁶
▲김정준⁶² ▲김중순⁸⁸
▲김종하⁶⁶ ▲김중현⁶¹
▲김준식⁷⁹ ▲김중연⁷⁴
▲김진영⁶³ ▲김찬식⁸⁷
▲김치봉⁸⁷ ▲김현주⁶⁸
▲남장수⁶⁸ ▲노무섭⁷³
▲노재선⁵⁶ ▲노환영⁶²
▲류인재⁸¹ ▲문상진⁷⁹
▲문종규⁶⁴ ▲민태정⁷¹
▲박경진⁷⁸ ▲박남규⁸⁶
▲박명준⁶⁷ ▲박민형⁸⁷
▲박상구⁷² ▲박성규⁷⁵
▲박영만⁸⁰ ▲박영하⁶⁴
▲박정우⁸¹ ▲박주환⁷¹
▲박진남⁸⁹ ▲박찬빈⁶⁶
▲박호건⁷⁴ ▲백덕현⁶⁷
▲백영현⁷¹ ▲변성우⁸⁶
▲서영수⁷⁷ ▲서재준⁸¹
▲서진구⁷⁷ ▲성낙진⁶⁰
▲손우태⁶⁹ ▲송신현⁶⁷
▲송재복⁸¹ ▲송현석⁶⁶
▲신기룡⁷⁴ ▲신동기⁶⁵
▲신순선⁵⁴ ▲신종계⁷⁷
▲심형주⁵⁵ ▲안영덕⁸⁹
▲안치명⁶⁵ ▲양배덕⁶¹
▲여인갑⁶⁸ ▲염갑형⁷²
▲오병욱⁶¹ ▲오병태⁵⁸
▲옥영석⁸² ▲우효섭⁷⁶
▲유교환⁶¹ ▲유우영⁶⁴
▲유보일⁶⁴ ▲유세종⁸⁴
▲유정철⁵⁹ ▲유중희⁵⁷
▲윤길수⁷⁵ ▲유재복⁵⁷
▲윤정목⁶⁷ ▲이 동⁶³
▲이광우⁷⁷ ▲이근명⁶⁷
▲이기원⁸⁴ ▲이대운⁷²
▲이도영⁵⁸ ▲이동우⁸⁹
▲이동찬⁶³ ▲이병철⁸⁴
▲이병호⁶⁷ ▲이복춘⁶⁹
▲이상훈⁶⁶ ▲이성원⁸⁸
▲이성환⁷⁰ ▲이세규⁸⁸
▲이수원⁶¹ ▲이양걸⁶⁷
▲이영재⁸⁸ ▲이영집⁶⁶
▲이용우⁸¹ ▲이원구⁸⁹
▲이유근⁶² ▲이재욱⁶⁵
▲이재창⁵⁷ ▲이정완⁸⁹
▲이정웅⁶³ ▲이종대⁸²
▲이종수⁶⁹ ▲이종원⁷⁰
▲이종진⁶⁹ ▲이지복⁶⁸
▲이진수⁸⁸ ▲이철신⁸⁷
▲이충우⁶⁶ ▲이풍기⁵²
▲이한백⁶¹ ▲이현규⁸⁵
▲이형원⁸² ▲이형재⁷⁰
▲이호순⁶⁸ ▲이흥만⁸⁹
▲임성빈⁵⁶ ▲임종찬⁶⁴
▲임태원⁴⁹ ▲장석주⁸⁶
▲장재익⁸⁸ ▲전갑문⁵⁷
▲전병진⁷⁸ ▲정광용⁶⁴
▲정구동⁶⁷ ▲정대환⁶⁹
▲정영삼⁷⁴ ▲정윤진⁷⁷
▲정형수⁶³ ▲조규섭⁸⁹
▲조규진⁸² ▲조남일⁷⁴
▲조재현⁷⁹ ▲조정호⁶⁵
▲조청원⁷⁷ ▲조현우⁸⁷
▲조효상⁷⁰ ▲주종혁⁸⁹
▲지기철⁷¹ ▲지원식⁶⁹

▲진영록⁵⁸ ▲최 연⁵⁹
▲최갑석⁵⁵ ▲최규복⁶¹
▲최병필⁶² ▲최선원⁷⁰
▲최승철⁷⁰ ▲최영호⁷⁶
▲최중호⁸⁷ ▲하석수⁷²
▲한강수⁷⁸ ▲한상조⁵⁷
▲한영웅⁵³ ▲한창천⁷⁵
▲한희서⁶⁵ ▲홍사우⁶⁰
▲홍성문⁷¹ ▲홍순채⁷¹
▲홍안의⁶⁷ ▲황규덕⁵³
▲황규원⁷¹ ▲황남구⁵⁵

◇農科大學

▲유달영³⁶ ▲이춘영³⁹
▲강문주⁴⁸ ▲김원숙⁴⁷
▲배기환⁴⁹ ▲송계원⁴⁸
▲이종호⁴⁹ ▲정규용⁴⁹
▲강동석⁸⁵ ▲고경일⁶⁵
▲곽소수⁶⁶ ▲권혁재⁵⁷
▲김원진⁸⁸ ▲김경배⁶²
▲김나섭⁵⁹ ▲김낙배⁸¹
▲김남식⁵⁹ ▲김남혁⁵⁷
▲김동호⁸⁶ ▲김두만⁵⁶
▲김상현⁸⁹ ▲김선영⁸⁶
▲김선태⁸⁸ ▲김성한⁵⁰
▲김영근⁶⁸ ▲김영옥⁵⁹
▲김영철⁶³ ▲김용구⁶¹
▲김인희⁵⁸ ▲김재학⁵⁷
▲김중무⁶³ ▲김중성⁶⁰
▲김준평⁵³ ▲김진철⁵⁵
▲김현욱⁸⁷ ▲김형욱⁵⁵
▲노준정⁵⁵ ▲류석준⁸⁹
▲문종렬⁶² ▲박경석⁵⁶
▲박관식⁵⁸ ▲박상홍⁵⁹
▲박순석⁵⁵ ▲박재현⁸⁷
▲박준규⁵⁷ ▲박진환⁵²
▲박창호⁶² ▲박치석⁷¹
▲박홍준⁸⁹ ▲반성환⁵⁵
▲서완수⁶⁴ ▲서정락⁶⁰
▲손정익⁸² ▲손진규⁸⁹
▲손현수⁵³ ▲송기언⁶⁰
▲송동훈⁶⁵ ▲송원중⁸⁸
▲송중관⁵⁶ ▲신성기⁵⁹
▲신윤중⁵⁰ ▲신준우⁵⁶
▲양영규⁷² ▲양호승⁶⁹
▲오영운⁸⁹ ▲우성봉⁶³
▲유문형⁵⁵ ▲유병세⁵⁵
▲이경용⁵⁷ ▲이관승⁶⁷
▲이근필⁶² ▲이명희⁷¹
▲이무성⁷⁰ ▲이부경⁶⁴
▲이석호⁷⁰ ▲이선진⁷³
▲이수성⁶³ ▲이수정⁶⁹
▲이승구⁷⁰ ▲이영열⁶⁰
▲이윤우⁵⁷ ▲이인형⁶¹
▲이종섭⁶² ▲이진성⁵³
▲이형주⁷⁰ ▲이희성⁷⁵
▲임수호⁶³ ▲장명희⁷⁷
▲전지영⁸⁷ ▲정진국⁷⁵
▲재정주⁷⁶ ▲조규열⁵⁶
▲조성인⁸⁴ ▲진창근⁷⁶
▲채수근⁵⁸ ▲최동열⁵⁵
▲최영주⁸² ▲최창우⁶⁴
▲한상봉⁶³ ▲호경진⁵⁶
▲홍동의⁸⁹

◇文理科大學

▲강경신⁷² ▲강대건⁶³
▲강두수⁶⁸ ▲강석명⁶¹
▲강승렬⁶⁶ ▲구봉희⁶⁶
▲권오득⁶⁸ ▲김동일⁶²
▲김동호⁷⁰ ▲김묘옥⁵⁷
▲김문성⁶⁰ ▲김상하⁷¹
▲김석만⁵⁷ ▲김신환⁵²
▲김억환⁶³ ▲김영작⁶⁴
▲김영철⁶¹ ▲김용년⁵⁸

▲김윤희⁷¹ ▲김인룡⁴⁹
▲김인자⁶³ ▲김준기⁶⁸
▲김진석⁶⁵ ▲김차균⁶⁴
▲김철자⁵⁷ ▲김충부⁷⁰
▲김쾌렬⁷⁰ ▲김태수⁷¹
▲김태승⁶⁴ ▲김태영⁶²
▲김하진⁶² ▲김현배⁶⁴
▲김형렬⁶¹ ▲김해남⁶³
▲김훈수⁴⁹ ▲나기웅⁷⁵
▲노영일⁶⁴ ▲노평식⁵⁸
▲박두일⁵⁶ ▲박명기⁶³
▲박병훈⁷¹ ▲박성희⁷²
▲박옥출⁵² ▲박용호⁵³
▲박종규⁷³ ▲박찬동⁷¹
▲박춘호⁵⁹ ▲박태원⁵⁰
▲방성룡⁷² ▲방익찬⁷³
▲백한균⁶⁰ ▲서기림⁶⁰
▲성민선⁶⁸ ▲손정규⁵⁵
▲송병희⁵⁵ ▲송인찬⁶³
▲송준오⁶⁶ ▲신규철⁵⁷
▲심사수⁶⁰ ▲안기문⁵⁵
▲안상진⁵³ ▲안표순⁵⁶
▲안현화⁵⁶ ▲양호민⁴⁹
▲엄규백⁵⁶ ▲오권태⁶²
▲오원철⁵² ▲오정섭⁶⁵
▲오현승⁶⁹ ▲오현우⁵⁰
▲원덕철⁷⁵ ▲유순애⁷⁴
▲유영규⁶⁷ ▲유재홍⁶⁴
▲윤생남⁶⁴ ▲윤영관⁷⁵
▲윤정선⁷⁰ ▲이강조⁶²
▲이계익⁶¹ ▲이광렬⁷⁵
▲이광수⁵⁹ ▲이규일⁵⁷
▲이근호⁶¹ ▲이덕주⁷¹
▲이돈형⁶³ ▲이명석⁶⁶
▲이명승⁵⁰ ▲이문환⁵³
▲이석철⁶³ ▲이성재⁶³
▲이원우⁶⁶ ▲이정린⁴⁸
▲이정숙⁶¹ ▲이창규⁵⁸
▲이춘재⁶³ ▲이치선⁵⁴
▲이택주⁷⁰ ▲이필원⁶⁵
▲이해창⁶⁷ ▲이혜봉⁶⁶
▲이호웅⁷⁵ ▲임광순⁷²
▲임동규⁶⁹ ▲장국원⁶¹
▲장기홍⁵⁷ ▲장종하⁶⁶
▲전인영⁶⁵ ▲전해종⁴⁷
▲정경위⁷⁰ ▲정무진⁵⁶
▲정병후⁴⁹ ▲정용재⁵⁰
▲조계찬⁵¹ ▲조병태⁵⁴
▲조순자⁵⁷ ▲조재신⁶⁴
▲주윤식⁷⁵ ▲천윤길⁷¹
▲최선진⁶² ▲최성렬⁴⁸
▲최영호⁶¹ ▲최인일⁷⁰
▲최진호⁷¹ ▲한전숙⁴⁹
▲허원제⁷⁴ ▲허유순⁷¹
▲홍종률⁶⁶ ▲황원근⁷⁰
▲황인길⁶² ▲황필례⁵⁶

◇美術大學

▲김경숙⁶⁷ ▲김원중⁶³
▲김재윤⁶¹ ▲김춘옥⁶⁸
▲김현실⁷⁰ ▲박경희⁶²
▲박영애⁷⁵ ▲박지선⁸³
▲손원집⁶⁹ ▲심정수⁶⁷
▲양창보⁶² ▲우병탁⁸⁴
▲유제국⁶³ ▲윤경선⁶⁹
▲윤형실⁵⁸ ▲이길룡⁶⁵
▲이정자⁶⁶ ▲임명옥⁸⁵
▲전상수⁵⁵ ▲정해일⁶⁴
▲최윤정⁸⁶ ▲최창원⁶⁶
▲홍동식⁵¹

◇法科大學

▲고문석⁴⁶ ▲노홍희⁵⁷
▲오동수⁴³ ▲유재방⁴²

▲이준상⁴³ ▲이홍규²⁹
▲정동섭⁴⁰ ▲강대신⁶⁷
▲강원일⁶³ ▲고정환⁵⁸
▲곽일훈⁶⁵ ▲구자순⁵⁷
▲권병일⁵⁷ ▲권석진⁶⁰
▲김경철⁷⁶ ▲김경현⁵⁷
▲김광성⁶³ ▲김기성⁶⁴
▲김배렬⁶⁹ ▲김상태⁵²
▲김상현⁸⁶ ▲김성열⁸⁷
▲김용관⁸⁸ ▲김용상⁸⁶
▲김의석⁸⁹ ▲김인수⁵¹
▲김재민⁵⁸ ▲김정환⁵⁷
▲김종명⁶⁵ ▲김종민⁸⁷
▲김주호⁵⁸ ▲김진기⁷¹
▲김진모⁶¹ ▲김진홍⁶¹
▲김창국⁵⁸ ▲김태영⁸³
▲김평우⁶⁷ ▲김표진⁵⁴
▲김해산⁶⁴ ▲문성웅⁶⁷
▲문해성⁶³ ▲민병목⁶³
▲민예순⁶¹ ▲민정기⁴⁷
▲박명석⁵⁶ ▲박무용⁶⁸
▲박성귀⁷⁵ ▲배달순⁵⁷
▲백보윤⁶¹ ▲백주현⁵⁶
▲변동걸⁷⁰ ▲서진석⁸⁹
▲석의수⁵⁸ ▲성기창⁷⁰
▲성달용⁶⁴ ▲신교준⁶⁶
▲신민규⁶² ▲심규철⁸⁰
▲안영도⁶⁹ ▲안원모⁷⁷
▲양경석⁷⁶ ▲양재식⁸⁹
▲염기창⁸⁹ ▲오경락⁵⁸
▲오석규⁶² ▲오찬영⁸⁹
▲우양구⁷⁴ ▲우종팔⁶⁵
▲원운목⁶⁰ ▲원희장⁵⁰
▲유상순⁸⁰ ▲유승남⁸⁶
▲유철희⁵⁶ ▲유희임⁶⁸
▲윤관식⁷⁶ ▲이국운⁸⁹
▲이균철⁸⁹ ▲이복영⁶⁶
▲이상건⁸² ▲이상래⁸⁶
▲이상만⁶³ ▲이석영⁵⁵
▲이성웅⁶⁵ ▲이순복⁵⁸
▲이영대⁸⁵ ▲이원달⁴⁷
▲이원호⁶⁵ ▲이재홍⁷⁸
▲이정식⁸² ▲이제재⁵¹
▲이주성⁸⁰ ▲이중근⁵⁸
▲이태권⁸⁵ ▲이태로⁶⁰
▲이해규⁶⁴ ▲이화영⁶²
▲이희철⁵¹ ▲임성권⁸³
▲임철목⁵⁹ ▲정만익⁵⁴
▲정성호⁸⁵ ▲정종현⁶⁶
▲조석훈⁸⁹ ▲조승식⁷⁴
▲조영운⁶¹ ▲조태현⁷³
▲조해근⁸² ▲차유경⁸⁰
▲차한성⁷⁷ ▲최낙현⁵⁸
▲최동렬⁶⁸ ▲최병모⁷¹
▲최병무⁶³ ▲최성준⁵⁹
▲최현택⁷¹ ▲탁일호⁵⁵
▲하영석⁸² ▲한탁재⁶⁷
▲허 봉⁶³ ▲홍원기⁶⁰
▲황규민⁶³ ▲황상현⁶⁷

◇師範大學

▲김인표³⁸ ▲신의범⁴¹
▲고옥순⁴¹ ▲고정순³⁹
▲고화자⁴⁷ ▲공소옥⁴²
▲권경홍³⁹ ▲권정자³⁹
▲권진순⁴⁷ ▲권청득⁴⁰
▲김기옥⁴⁰ ▲김계희⁴³
▲김명자⁴⁴ ▲김명자⁴⁵
▲김봉란⁴⁷ ▲김상순⁴⁰
▲김성운⁴⁵ ▲김소분³⁷
▲김소순³⁹ ▲김숙자⁴⁷
▲김숙자⁴⁰ ▲김순매⁴⁰
▲김순배⁴⁵ ▲김순실⁴¹

▲김영예³⁹ ▲김옥성⁴³
▲김옥성⁴⁷ ▲김옥청⁴³
▲김완경³⁹ ▲김유원⁴³
▲김은재⁴⁵ ▲김의상⁴⁵
▲김인규⁴⁵ ▲김인영⁴⁵
▲김정숙⁴⁵ ▲김정숙³⁹
▲김정순⁴⁴ ▲김정옥⁴⁴
▲김정환⁴⁴ ▲김진실⁴³
▲김창순⁴³ ▲김태화⁴⁰
▲김태희⁴⁵ ▲김희연⁴¹
▲남규덕⁴⁵ ▲남방원³⁹
▲남복희⁴³ ▲노성열⁴³
▲노효순⁴² ▲류현배⁴⁷
▲문창덕⁴² ▲박 재⁴⁴
▲박금옥⁴³ ▲박미빈⁴⁶
▲박정숙⁴⁴ ▲박정희⁴¹
▲박지원⁴⁵ ▲박희수⁴²
▲백남수⁴⁵ ▲서승강³⁶
▲서영자⁴³ ▲선우문숙⁴³
▲성낙정⁴¹ ▲송세남⁴⁵
▲송춘영⁴⁰ ▲신규숙³⁹
▲신금자⁴⁵ ▲신봉희⁴¹
▲심정옥⁴⁵ ▲안정순⁴³
▲양태정⁴⁶ ▲엄옥금³⁹
▲오명숙⁴⁰ ▲오봉연³⁹
▲오영희⁴⁰ ▲오정옥⁴⁷
▲오진경³⁸ ▲유설자⁴⁴
▲유원진⁴⁵ ▲유정규⁴³
▲유정열³⁹ ▲윤순자⁴⁵
▲이경란³⁸ ▲이경선⁴¹
▲이길구⁴⁴ ▲이명순⁴⁴
▲이박자⁴² ▲이순성⁴⁵
▲이양순⁴² ▲이영자⁴⁴
▲이옥경³⁹ ▲이은복⁴⁰
▲이인배⁴⁵ ▲이정숙³⁹
▲이정순⁴⁵ ▲이종숙⁴³
▲이종순⁴⁴ ▲이종해⁴⁶
▲이현옥⁴⁰ ▲이효애⁴⁵
▲임복희⁴¹ ▲임영희³⁹
▲임현보⁴⁰ ▲임혜옥³⁹
▲장명화³⁷ ▲장선악⁴⁰
▲장순규⁴⁰ ▲장형숙⁴⁵
▲장효원⁴¹ ▲전옥분⁴⁵
▲전혜숙⁴⁵ ▲정경조⁴⁰
▲정의섭³⁶ ▲조봉자⁴⁰
▲조은분⁴² ▲조정희⁴⁵
▲진덕순⁴¹ ▲최숙녀⁴⁴
▲최은향⁴⁵ ▲최인엽⁴⁶
▲한난숙⁴⁵ ▲한순우⁴⁷
▲허금임³⁹ ▲현경애⁴⁰
▲호정희⁴⁴ ▲홍동은⁴¹
▲홍예숙⁴⁶ ▲황홍숙⁴⁵
▲경희호⁶⁴ ▲김경렬⁶³
▲김경자⁶² ▲김경호⁵⁵
▲김규진⁵⁷ ▲김길중⁵²
▲김달우⁸¹ ▲김명순⁶⁵
▲김무홍⁶⁴ ▲김봉규⁵⁶
▲김상일⁶⁵ ▲김성옥⁶⁵
▲김수신⁶⁴ ▲김순애⁶⁰
▲김시형⁵⁸ ▲김신근⁵⁹
▲김연주⁸⁹ ▲김영숙⁵⁵
▲김영현⁵² ▲김재우⁸⁸
▲김정길⁶⁵ ▲김종원⁶⁵
▲김창걸⁶⁰ ▲김태갑⁵⁸
▲김태진⁶⁰ ▲김해정⁸⁹
▲문봉관⁵⁸ ▲박기석⁶⁹
▲박노옥⁶⁵ ▲박동근⁶²
▲박승덕⁵⁸ ▲박승용⁸⁰
▲박인근⁶³ ▲박인식⁵²
▲박재공⁶⁹ ▲박종현⁷⁴
▲박태우⁵⁷ ▲백완희⁷²
▲백월용⁶³ ▲봉정모⁷⁶
▲서복원⁶² ▲서수현⁵⁵
▲서정기⁵⁷ ▲소병현⁵²
▲소재익⁵⁸ ▲소진광⁷²

- ▲손옥호76 ▲송동수71 ▲송옥화59 ▲송혜자60 ▲신각범58 ▲신영희74 ▲신용수57 ▲신태우62 ▲심상필54 ▲심재상80 ▲안규철58 ▲양인환58 ▲원대식62 ▲유완수60 ▲유한구71 ▲윤석원75 ▲윤용재64 ▲윤재봉60 ▲윤진국60 ▲윤희옥60 ▲은경자63 ▲이종69 ▲이계윤57 ▲이광희70 ▲이규진63 ▲이길오77 ▲이동욱73 ▲이방렬69 ▲이병룡70 ▲이병준53 ▲이복연51 ▲이상재54 ▲이수식65 ▲이영자60 ▲이영주56 ▲이정덕59 ▲이정자63 ▲이종민57 ▲이종연67 ▲이준동66 ▲이진환58 ▲이창국64 ▲이춘근63 ▲이형표49 ▲이훈상65 ▲임성근74 ▲임창순52 ▲장경희74 ▲장근화57 ▲장은영59 ▲장종택59 ▲장준호56 ▲전병일73 ▲정두현64 ▲정만진55 ▲정양호63 ▲정창규60 ▲정호경56 ▲정홍대87 ▲조동석48 ▲조선덕55 ▲조시영89 ▲조은자65 ▲주봉노59 ▲지충성61 ▲최광만59 ▲최근무52 ▲최정욱50 ▲최정현66 ▲최현섭74 ▲추건이63 ▲하영준60 ▲한삼옥54 ▲한천옥75 ▲홍근일57 ▲홍원기71 ▲황광수61 ▲황재근61
- ◇商科大學
- ▲권대옥48 ▲정진홍49 ▲강구영74 ▲강창준50 ▲공광우55 ▲김건수60 ▲김규환71 ▲김기준59 ▲김길수70 ▲김만현56 ▲김석근65 ▲김성호61 ▲김승무68 ▲김영상48 ▲김용성62 ▲김정우69 ▲김종갑56 ▲김종해55 ▲김준성68 ▲김진호58 ▲김학연71 ▲남영우73 ▲노정욱52 ▲마문호51 ▲문성택72 ▲문택근72 ▲박길상72 ▲박대룡57 ▲박영로57 ▲박영일63 ▲박인태57 ▲박창규61 ▲박태일66 ▲방형구71 ▲배선홍49 ▲배종렬65 ▲배진규57 ▲배충복69 ▲서광옥57 ▲서문규58 ▲서병익65 ▲성기학70 ▲손내선61 ▲신문철56 ▲신범식56 ▲안병석62 ▲어영권69 ▲여구연56 ▲오경민71 ▲오병화64 ▲오수길67 ▲오정환65 ▲오증근71 ▲원영춘66 ▲유명식64 ▲유종백67 ▲유태삼74 ▲윤길현56 ▲이덕용73 ▲이병대65 ▲이상건56 ▲이승웅64 ▲이안희59 ▲이연택64 ▲이용우73 ▲이은면53 ▲이장호69 ▲이정규52

- ▲이정상65 ▲이중희52 ▲이희준53 ▲임한석63 ▲장기호74 ▲정경완59 ▲정의연68 ▲정인승54 ▲조규재54 ▲조대형60 ▲조영식57 ▲주원식64 ▲지무남69 ▲최용호54 ▲최제현60 ▲최철현57 ▲한 환56 ▲한규렬64 ▲한상권58 ▲한석정69 ▲한정준58 ▲홍 철69 ▲홍순의70 ▲황문환68 ▲황옥현55
- ◇獸醫科大學
- ▲권순호57 ▲김길성64 ▲김두명56 ▲김성기80 ▲김이섭59 ▲김정근59 ▲김태희63 ▲나병무64 ▲박기복59 ▲박만택56 ▲서승창58 ▲서정순59 ▲석세조54 ▲송남훈68 ▲안재홍80 ▲오창환75 ▲이덕주64 ▲이방환49 ▲이성열65 ▲이원준66 ▲이운선55 ▲이준섭58 ▲이한일66 ▲장재홍63 ▲정용면57 ▲정홍래64 ▲조희택56 ▲지순환66 ▲최홍렬73 ▲최희인56 ▲한수남53 ▲한정윤64 ▲홍성민70
- ◇藥學大學
- ▲노동준49 ▲유정렬50 ▲이준환49 ▲김순철59 ▲강희경88 ▲곽영의65 ▲김 영77 ▲김 탁62 ▲김기종75 ▲김병각57 ▲김양균55 ▲김인경87 ▲김홍숙77 ▲문범수56 ▲문원호69 ▲박정옥56 ▲박정섭51 ▲박정옥87 ▲박창서74 ▲손인자73 ▲송인학57 ▲신성목74 ▲오동환57 ▲오영자59 ▲우용렬61 ▲유도봉74 ▲이광식70 ▲이기완68 ▲이상호70 ▲이석만62 ▲이승한71 ▲이인기77 ▲이재양57 ▲이종규71 ▲이혜숙78 ▲장봉수65 ▲장충남65 ▲정환수55 ▲주갑순52 ▲최경순60 ▲최종원64 ▲추홍주80
- ◇音樂大學
- ▲강려진88 ▲강정숙59 ▲곽완수75 ▲김경숙87 ▲김길운70 ▲김동수79 ▲김준범87 ▲김형규64 ▲김혜자55 ▲명순자68 ▲목완수77 ▲문병찬61 ▲방영호84 ▲방효선74 ▲사공복수70 ▲심선화76 ▲오건식66 ▲우화경62 ▲이기정66 ▲이미자65 ▲이성화69 ▲이영숙59 ▲임은정67 ▲정혜주68 ▲조 현67 ▲최경혜68 ▲최덕천62 ▲홍지영67 ▲현병화62
- ◇醫科大學

- ▲주영재39 ▲이명복39 ▲임영식32 ▲최익렬42 ▲손병선48 ▲장운삼49 ▲정희영47 ▲강길전67 ▲강태현56 ▲구재철64 ▲권기익77 ▲김범용53 ▲김충철67 ▲김현규69 ▲문동진50 ▲박경찬60 ▲박문선58 ▲박상련72 ▲박용수86 ▲박재일50 ▲박정국56 ▲박호진77 ▲서교일84 ▲서환조60 ▲송병정56 ▲송운영61 ▲송제일79 ▲안기주63 ▲양택선84 ▲오준희75 ▲원상희81 ▲유문자68 ▲유승근78 ▲유윤정77 ▲이갑로71 ▲이건용75 ▲이남수50 ▲이덕수61 ▲이병춘56 ▲이상일81 ▲이승남82 ▲이용규60 ▲이은구81 ▲이채혁85 ▲임남영71 ▲임채만85 ▲장관환78 ▲장기려32 ▲장정순60 ▲전영훈82 ▲정영한55 ▲정필현82 ▲정혜란83 ▲조상현84 ▲조효남84 ▲주순오53 ▲주은정89 ▲차건원82 ▲차철환53 ▲최승순80 ▲한명식80 ▲한영자70 ▲한예택67 ▲함명립76 ▲허 현67 ▲홍희정86 ▲황대영78
- ◇齒科大學
- ▲강희재50 ▲김영호49 ▲정낙연47 ▲강대준72 ▲공만석76 ▲김경옥76 ▲김명수72 ▲김오환68 ▲김용철70 ▲김원식86 ▲김익현65 ▲김주관72 ▲김형일78 ▲김효순75 ▲류경희75 ▲문제백71 ▲박경정75 ▲박경준63 ▲박만수68 ▲박병덕66 ▲박승우74 ▲박정덕78 ▲박태선58 ▲배효택81 ▲변기정71 ▲석창인87 ▲손우성81 ▲손호현76 ▲신 현72 ▲신문창87 ▲심연택74 ▲안경민83 ▲안규소72 ▲안성훈81 ▲안종경84 ▲안효일62 ▲오기돈67 ▲오민환70 ▲오인식56 ▲유기환70 ▲유현호60 ▲윤경수78 ▲윤도철87 ▲윤철민88 ▲이규철71 ▲이동주62 ▲이상표83 ▲이영종64 ▲이집식68 ▲이철민65 ▲이태영58 ▲이현석68 ▲임택재61 ▲최종호74 ▲탁기현82 ▲한상욱64 ▲한태원76 ▲현기용83 ▲홍금표58 ▲홍성익61 ▲홍현주88 ▲황규동71 ▲황인서67 ▲황정일70
- ◇大學院
- ▲고재홍64 ▲김문협68 ▲김상균70 ▲김효규59 ▲문수진77 ▲박종렬71 ▲송석훈78 ▲송영준82 ▲송찬엽67 ▲신응배65

- ▲양일석75 ▲이동호71 ▲이성관58 ▲이용빈62 ▲이정우60 ▲이주성65 ▲장현구68 ▲주상우76 ▲한선화64
- ◇經營大學院
- ▲김호봉69 ▲박원봉68 ▲안종훈71 ▲이영희67

- ▲이운재72 ▲전우영69
- ◇教育大學院
- ▲오영태72
- ◇保健大學院
- ▲김종석80 ▲김학기76 ▲문혜리75 ▲민병찬77 ▲서순립78 ▲윤기은72 ▲이종찬88 ▲이형진87

- ◇行政大學院
- ▲김동호70 ▲김태중85 ▲박재원71 ▲손종호67 ▲이지언87 ▲이지철73 ▲임세환71 ▲장만철88
- ◇環境大學院
- ▲김용만81 ▲박수남87 ▲이석순84 ▲조재훈88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발급기간: 5월 1일 ~ 5월 31일〉

법 인

◇(주)신천일렉트로닉스 具雄書(66년 商大卒)=1좌
◇(주)유진전력 劉載守(AMP 8기)=1좌
◇쌍용제지(주) 鄭善基(63년 工大卒)=1좌

개 인

- ◇人文大學
- ▲강돈구78 ▲김이구62 ▲이승중69 ▲임재주69 ▲하태진89
- ◇社會科學大學
- ▲고일성58 ▲김기영61 ▲김재현66 ▲김진하87 ▲김형진66 ▲박용경79 ▲방창식87 ▲서경국87 ▲오광근74 ▲유시량80 ▲윤무섭58 ▲이수익65 ▲이태방68 ▲조흥식76 ▲하영기48
- ◇自然科學大學
- ▲김양주61 ▲김영식68 ▲전동철61 ▲한창우79 ▲황병천76
- ◇家政大學
- ▲임경숙80
- ◇看護大學
- ▲고명진70
- ◇經營大學

- ▲이태영87 ▲조한승77
- ◇工科大學
- ▲곽정석54 ▲기우봉58 ▲김민수87 ▲김선웅88 ▲김성중66 ▲김영경56 ▲김영석87 ▲김찬수88 ▲김창수84 ▲남장식88 ▲노 군86 ▲박수관88 ▲박인근79 ▲박종규60 ▲서정철88 ▲신명환60 ▲양정웅68 ▲양준모89 ▲엄채영60 ▲여주상88 ▲유지상78 ▲윤영채71 ▲이병호67 ▲이용식72 ▲이원식61 ▲이주현88 ▲이현구88 ▲임용택59 ▲전성덕88 ▲주원택85 ▲추지석64 ▲한방교55 ▲홍상희72 ▲홍선기87 ▲황인수86 ▲황준현89
- ◇農科大學
- ▲송기중62 ▲이용환75 ▲임순민69
- ◇文理科大學
- ▲남정이71 ▲이재권74 ▲정소성69 ▲조웅식70
- ◇美術大學
- ▲이정숙69
- ◇法科大學
- ▲강양원67 ▲강영훈69 ▲김성주66 ▲김순구62 ▲김진우56 ▲백영엽77 ▲신정철52 ▲전봉호79 ▲전윤철65 ▲추영일65 ▲표민웅66 ▲하철용72 ▲한용구71
- ◇師範大學
- ▲김상현70 ▲박수자88 ▲심진호75 ▲양정순88 ▲오경환72 ▲이홍중59 ▲이희자64 ▲이희호50 ▲전용근78 ▲주성돈68
- ◇商科大學
- ▲김방연56 ▲김상균65 ▲김정순59 ▲라길용65 ▲이상선63 ▲이은방61 ▲최규성63 ▲홍성권59
- ◇獸醫科大學
- ▲김대용85 ▲유한상82
- ◇藥學大學
- ▲김태운59 ▲최귀자70 ▲최문식62 ▲황의성65
- ◇醫科大學
- ▲신현호78 ▲웅상길64
- ◇齒科大學
- ▲김병찬75 ▲김지호65 ▲이종률65
- ◇大學院
- ▲김범진79 ▲박용희65 ▲이상완63
- ◇經營大學院
- ▲유민희71
- ◇保健大學院
- ▲이영근65 ▲전금자74
- ◇行政大學院
- ▲강병천73 ▲김희용64 ▲박용기76 ▲서정현69 ▲임봉규66